

전략지역심층연구 16-04

#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 ·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유덕 · 임유진

#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유덕·임유진

연구자료 16-14/전략지역심층연구 16-04

##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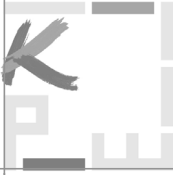
인 쇄 2016년 12월 24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T. 02-2279-6760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30-5 94320

978-89-322-2064-2(세트)



## 국문요약

유럽경제의 침체와 환율효과 등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은 한EU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EU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4%와 5억의 인구를 갖춘 거대시장이며, 한국의 총수출 중 9.1%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체제 전환과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 및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은 EU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경제로의 변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확대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생산 시설을 갖춰나갔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와 더불어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산

업별 투자와 수출의 상관성 분석 결과 한국기업의 투자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산업군(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류, 전자제품 등)에 속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투자가 수출을 유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본국과 해외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연계는 무역수지에 반영되어 대중동부유럽 무역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투자시기, 투자분야, 투자포지션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주로 현지 생산시설의 신설과 같은 그린필드 형태의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투자는 상기의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대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점차 감소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생산시설의 이전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기인 2004년에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는 상이한 형태의 투자 패턴으로, 인수합병 위주의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현 시점에서 대중동부유럽의 투자 및 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낮은 노동임금으로 이점을 얻었으나, 중동부유럽의 상황변화로 대중동부유럽 투자 유인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기에 한국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중동부유럽 4개국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에 점차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EU 역내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다른 신흥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수출 증가 외에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던 방식에서 환위험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조달선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현지투자 증가가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신흥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대형 1차 부품업체들은 현지진출 이후 기존 일본계 완성차업체의 현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고객을 확보하여 성장과 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진출 한국기업 또한 기존 본청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 생산·판매 거점 구축에서 자체 경쟁력 확대를 위한 R&D 및 판매 다변화를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단순 부품에서 벗어나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여 중고위 기술 수준의 정밀한 부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의 성과는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EU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가 수직적 분업차원에서의 공급사슬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현지진출 기업은 산업별 특색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EU의 FTA 체결국 증가는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 EU의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생산거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대중동부유럽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동부유럽으로 중간재를 조달하던 국내기업의 거래선이 축소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은 EU 기금으로 운영되는 V4 국가의 기존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한 우리기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현지투자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통해 중동부유럽 진출 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은 EU 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 지역에 지원되는 EU 기금 수혜국으로, EU 기금이 지원되는 2014~20년까지 수송체계 구축, ICT 환경 조성, 전자정부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EU 역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수성을 감안하면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전략이 수주 경쟁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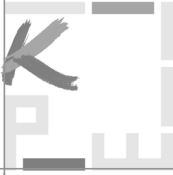


# 차례

- 국문요약 ..... 3**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배경 ..... 14
  -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7
  -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 19
  -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21
  
- 제2장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 ..... 23**
  -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 24
  - 2.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 변화 및 특징 ..... 30
  
- 제3장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와 그 특징 ..... 39**
  - 1.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 40
  - 2. 한·EU 무역관계와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특징 ..... 46
  - 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 51
  - 4.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 54
  - 5. 소결 ..... 64
  
- 제4장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 비교 ..... 65**
  - 1.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비교 ..... 66
  - 2.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비교 ..... 72
  -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 비교 .....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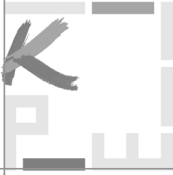


<b>제5장 결론</b> .....	<b>79</b>
1. 연구 요약 .....	80
2. 정책적 시사점 .....	81
<b>참고문헌</b> .....	<b>88</b>
<b>부록</b> .....	<b>93</b>
<b>Executive Summary</b> .....	<b>96</b>



## 표 차례

표 2-1.	V4 국가의 경제 현황(2015년 기준) .....	25
표 3-1.	V4 국가 진출 한국기업 업종 수 및 비중 .....	42
표 3-2.	한국기업의 V4 국가 진출 현황, 특징 및 전망 .....	44
표 3-3.	V4 국가의 EU 기금(2014~20년) 예산 .....	45
표 3-4.	한국기업의 V4 국가 EU 기금 수혜 현황 .....	46
표 3-5.	최근 대EU 무역 현황 .....	48
표 3-6.	서유럽 및 중동부유럽 주요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	51
표 3-7.	V4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	52
표 3-8.	V4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	53
표 3-9.	한국의 V4 국가에 대한 산업별 투자(2003~13년 누적) .....	58
표 3-10.	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산업별 누적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	63
표 4-1.	일본과 한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 추이 비교 .....	68
표 4-2.	중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 추이 .....	69
표 4-3.	일본의 대V4 국가 제조업 투자(1998~2012년 누적) .....	71
표 4-4.	한국의 대V4 국가 제조업 투자(1998~2012년 누적) .....	71
표 4-5.	중국의 대V4 국가 투자((1998~2012년 누적) .....	72
표 4-6.	한국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	74
표 4-7.	일본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	75
표 4-8.	중국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	76
표 5-1.	EU의 FTA .....	83



## 그림 차례

그림 1-1. 한국의 대EU 수출 .....	16
그림 1-2. 한국의 대EU 투자 .....	16
그림 1-3. 한국의 대V4 무역 .....	16
그림 1-4. 한국의 대V4 수출과 투자 .....	16
그림 2-1.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경제성장률 .....	26
그림 2-2. V4 국가의 실질 GDP 추이 .....	26
그림 2-3.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실업률 추이 .....	28
그림 2-4.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만 25세 이하 청년실업률 추이 ..	28
그림 2-5. 체코, 헝가리, 폴란드 환율 변동 추이 .....	29
그림 2-6. V4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	29
그림 2-7. V4 국가 및 EU 28개국 재정수지 .....	29
그림 2-8. V4 국가 및 EU 28개국 정부부채 .....	29
그림 2-9. V4 국가의 GDP 증감 추이 .....	31
그림 2-10. EU 28개국 대비 V4 국가의 1인당 GDP 수준 .....	31
그림 2-11. V4 국가의 무역 개방도 .....	32
그림 2-12. V4 국가의 수출 교역 상대국(2015년 기준) .....	32
그림 2-13.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	33
그림 2-14. V4 국가의 대전 세계 품목별 비중 수출 추이 변화 (2000년, 2015년) .....	33
그림 2-15. V4 국가 FDI 유입(누계기준) .....	34
그림 2-16. 제조업의 비중 변화 .....	35
그림 2-17. 경상수지 및 경상수지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 .....	36
그림 3-1. 한국의 대V4 국가 신고진수 추이 .....	40
그림 3-2. 한국의 대V4 국가 투자 .....	40
그림 3-3. 제조업의 세부 업종 .....	42
그림 3-4. 한국 주요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 .....	43
그림 3-5. 대EU 무역 추이 .....	47


그림 3-6. 대EU 월별 무역수지 변화 .....	47
그림 3-7. EU 회원국과의 무역(수출+수입, 2014년) .....	49
그림 3-8. EU 회원국과의 무역수지(2014년) .....	49
그림 3-9. 대독일 무역 .....	50
그림 3-10. 대중동부유럽 4개국 무역 .....	50
그림 3-11. 대V4 국가에 대한 수출과 투자 .....	57
그림 3-12. 대슬로바키아 투자와 수출 .....	60
그림 3-13. 대체코 자동차 생산 부문 투자 및 관련 수출 .....	61
그림 3-14. 대폴란드 투자 및 수출 .....	62
그림 3-15. 대헝가리 투자 및 수출 .....	63
그림 4-1. 일본과 한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포지션 추이 비교 .....	68
그림 4-2. 중국의 대V4 국가 투자포지션 .....	70
그림 4-3. 중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누적투자(2003~12년) .....	70
그림 4-4. 한국, 중국, 일본의 대V4 국가 수출 .....	73
그림 4-5. 한국, 중국, 일본의 대V4 국가 수입 .....	73
그림 5-1. 일본의 신흥국 부품조달 전략 변화 .....	86

## 제1장

K

PMW

##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 1. 연구의 배경

프라하, 바르샤바 등 중동부유럽의 거리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쇼핑몰에는 한국 브랜드의 전자제품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동부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현지에서 생산된 EU產(Made in the EU) 제품이다. 국제자동차생산협회(O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대차는 체코에서 30만 7,450대의 승용차를 생산했고, 기아차는 슬로바키아에서 32만 3,720대의 승용차를 생산했다. EU와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에서의 생산량까지 합칠 경우 한국 자동차업체가 유럽에서 생산한 자동차 수는 2014년 83만 4,000여 대에 이른다.<sup>1)</sup> 이 수치는 생산대수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전체 생산의 10%를 초과하는 비중이다.<sup>2)</sup>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현지생산 사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기기를 비롯한 전자제품, 타이어, 화학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기업의 해외생산기지 건설이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다면, 중동부유럽 진출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다. 냉전종식 이후 중동부유럽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였고, 한국은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폴란드, 舊유고슬라비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공식수교는 1990년대 초까지 완료되었으나, 1990년대 한국·중동부유럽 간의 무역은 미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령 2000년 폴란드,

---

1) OICA, World Vehicle Production: OICA corresponding survey, Group Hyundai, 체코 생산(현대) 30만 7,450, 슬로바키아 생산(기아) 32만 3,720, 터키 생산(현대) 20만 3,157(러시아 생산(현대) 23만 7,000 제외), <http://www.oica.net/wp-content/uploads//Hyundai-2014-22-July.pdf>(검색일: 2016. 8. 30).

2) 연합뉴스(2016. 9. 27),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8월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공장 생산량은 처음으로 국내공장 생산량을 앞서기 시작했다. 국내 7개 완성차업체는 이 기간 277만 3,067대의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데 반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외공장에서 291만 6,840대의 차를 생산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이른바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에 대한 수출은 당시 대EU 수출의 3%에 불과하였다(그림 1-1 참고).<sup>3)</sup> 반면에 중동부유럽의 개방과 EU 가입 전망은 유럽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던 국내기업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했다.<sup>4)</sup>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V4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3,6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8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다.<sup>5)</sup> 2004~15년의 기간 중 한국기업의 대V4 누적투자는 33.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이전에는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대EU 총투자의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2005~06년의 기간 중에는 대EU 총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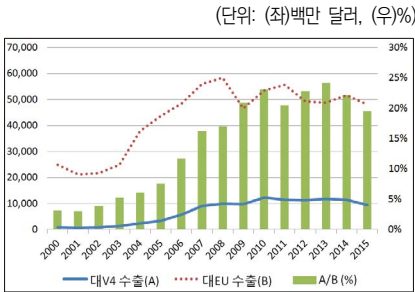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진출을 늘린 것은 한국기업뿐만이 아니며, 많은 EU 역내, 역외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건설하였다.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중동부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EU 단일시장의 일부가 된 반면, 임금수준이 낮아 서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sup> 2004년 V4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유럽(당시 유로존 기준) 평균의 25~4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sup>7)</sup> 또한 체제 전환을 마친 V4 국가들은 경제발전 및 산업현대화의 일환으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V4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는 한국의 대EU 무역패턴에 반영되었다. 2004년 이후 대중동부유럽 수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화가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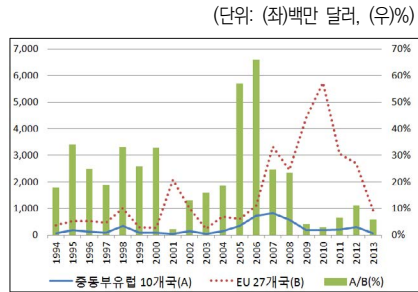
3)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3개국은 1991년 2월 정상회담을 통해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을 창설했으며, 이후 이 그룹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함에 따라 4개국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V4로 표기하도록 한다.  
 4) 당시 V4는 EU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EU는 서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투자로 인해 급증한 바 있으나, 대우자동차의 파산과 이에 따른 매각으로 인해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확대는 계속되지 못하였다.  
 6) EU 역내에 서유럽(특히 독일)·동유럽 간에 FDI를 통해 형성된 공급사슬에 대해서는 IMF(2013)을 참고할 것.  
 7) Global Insights(검색일: 2016. 8. 30) 자료에 근거한 저자의 계산.

그림 1-1. 한국의 대EU 수출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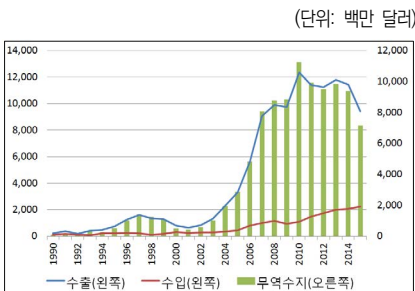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의 대EU 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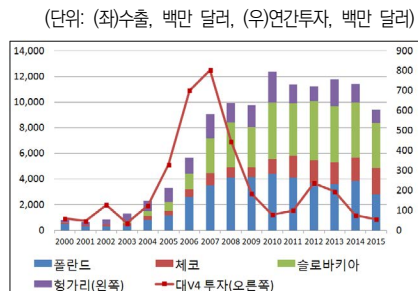
속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많은 협력업체를 동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중간재 조달이 급증하였다. 무역 중 상당수의 교역은 완성품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교역으로 광의의 차원에서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증가로 기록된다. 가령 한국 자동차업체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경우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수출로 기록되는 것이다. 결국 EU의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생산네트워크를 재편하였 아에 있는 한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경우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수출로 기록되고,

그림 1-3. 한국의 대V4 무역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그림 1-4. 한국의 대V4 수출과 투자



자료: IMF(2013).



[한국→중동부유럽→서유럽] 형식의 무역패턴이 구조화된 것이다.

대V4 투자는 2006~07년의 기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대규모 설비투자가 완료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대V4 수출은 2010년 12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0~14년의 기간 중 110~1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동부유럽이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임을 감안할 때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유럽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는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를 보였고, 중동부유럽의 임금상승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투자확대 전망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중반 이후 유럽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부유럽의 경우 성장전망이 보다 높고,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외자유치, 산업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동부유럽-서유럽으로 연결되는 한국기업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는 여전히 중요하다. 더욱이 한·EU FTA 발효 5주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FTA를 통한 관세철폐는 단기적인 수출 증가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운영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는 거대시장을 가진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2007년 FTA 협상 개시 당시 EU는 한국의 제2수출대상국이였으며, 대EU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최대 규모의 흑자 시현 시장이었다. 반면에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고,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된 데에는 유럽경제의 침체와 환율효과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EU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4%와 5억의 인구를 갖춘 거대시장이며, 한국의 총수출 중 9.1%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다.<sup>9)</sup> 대EU 무역, 특히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부유럽을 통한 EU 진출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주변국들도 동일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첫째는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전략을 V4 국가들에 대한 투자·무역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구축한 생산시설이 한국의 대EU 수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수출을 유발했음은 산업별 해외투자액과 품목별 수출액의 변화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국가별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한·중·일은 제조업 강국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대중동부유럽 무역에 있어서도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sup>10)</sup> 일본기업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대한 진출이 한국기업보다 빨랐으며, 중국기업의 경우 최근 부동산 매입 등을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한·중·일의 투자 비교는 3

---

8) 강유덕, 김준엽(2013), pp. 12~16.

9)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8. 30); 한국무역협회(KITA) 데이터(<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8. 30).

10) 한국의 경우 2013년 이후 대EU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대중동부유럽 무역흑자는 2014년 9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을 정도로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국간의 경합관계는 물론,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이에 따른 투자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욱이 동아시아 국가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총 해외 직접투자에서 중동부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국외연구로는 Lim(2003), Ikemoto(2005), Strach and Everett(2006), Clegg and Voss(2012), Ando and Kimura(2013)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실증 또는 사례연구가 일본학자 또는 일본기업들의 대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를 소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Lim(2003)은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과 한국기업의 동유럽에 대한 투자사례를 분석하고, 양국기업의 투자 동기 및 방식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Ikemoto(2005)는 일본의 대체코 투자의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고, 도요타의 대체코 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EU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서유럽 기업과 달리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일본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가 낮은 임금을 찾아 더 ‘동쪽’(루마니아, 불가리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Strach and Everett(2006)은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의 대체코 투자에 대한 결정요

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유사성, 숙련노동력에 대한 접근성이 일본의 대체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가 일본의 투자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Clegg and Voss(2012)는 중국의 대EU 투자를 분석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도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대EU 투자요인과 EU의 투자 유인정책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EU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do and Kimura(2013)는 아시아와 유럽 간에 형성된 무역관계에 있어 중동부유럽에 형성된 생산시기의 역할을 분석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무역 확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MF(2013)는 독일과 중동부유럽 사이에 형성된 공급사슬을 무역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의 투자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친 산업구조, 기술파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독일과 중동부유럽의 경기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유럽·동유럽 간의 무역연계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11)</sup> 관심의 초점은 투자가 무역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투자와 무역 간의 보완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중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해당 투자 대상국과의 무역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하병기(2009)와 최남석(2011)이 대표적이다. 하병기(2009)는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와 모기업·해외현지법인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 내 수출입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는 기업 내 수출입의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ODI와 기업 내 무역이 동

---

11) 투자와 무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제3장에서 별도의 선행연구를 제시하도록 한다.

시에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최남석(2011)은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2년 안에 제조업 부문 산업 내 무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생산과정의 세분화로 인해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연구는 해외투자와 산업 내 무역 간의 보완관계를 유지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술된 선행연구에 대해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신의 통계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동부유럽 투자 10년의 성과와 무역·투자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 중 동아시아 3국의 투자에 관한 비교연구는 정치한 통계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사례연구에 가까운 측면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무역, 투자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 EU 및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확대 또는 현재 수립된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1장)과 결론(5장)을 제외하고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EU 가입 이후 V4 국가가 겪은 경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가입 이전인 1990년대 중반 EU와 일종의 FTA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무역과 투자가 점차 서유럽에 통합되었다. EU 가입 협상 기간에는 EU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

으며, EU 가입 이후에는 서유럽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산업 및 무역구조상의 변화를 겪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와 함께 EU 가입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의 변화와 투자·무역 간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V4 국가에 대한 투자·무역을 산업별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관계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연구의 초점은 투자가 무역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후 이 관계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하도록 한다.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투자·무역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우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수출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직관에 의거한 예상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고, 해외투자에 있어 한·중·일 기업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동부유럽의 무역·투자 구조에 대한 거시적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용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제2장



#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  
변화 및 특징



이 장에서는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은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겪었고,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EU 단일시장에 편입되는 등 경제적인 급변기를 거쳤다. 특히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서유럽의 전진기지로 한국기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V4 국가로 유입되었고, 이는 V4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로 작용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V4 국가 경제의 현황과, EU 가입 이후 V4 국가의 경제변화를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V4 국가들은 1989년 공산주의 정권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V4 국가들은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여 사유화를 진행했으며,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의 경제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체제 전환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V4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주춤했으나, 25년 정도 지난 지금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가입 이전인 1990년대 중반 EU와 일종의 FTA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EU 가입 협상 기간에 EU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V4 국가의 무역과 투자는 점차 서유럽에 통합되면서 개방경제로 나아갔다. 이후 V4 국가들은 2004년 EU에 가입하면서 서유럽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인당 소득에 있어 서유럽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V4 국가의 2015년 경제 규모(GDP)는 2015년 기준 총 7,815억 유로로 전체 EU 28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인 14조 6,351억 유로 중 5.34%의 비중을 차지한다. 각국별로는 폴란드 4,277억 유로, 체코 1,670억 유로, 헝가리 1,087



억 유로, 슬로바키아 781억 유로이다.<sup>12)</sup> 1인당 국민소득은 체코 1만 5,800유로, 슬로바키아 1만 4,400유로, 폴란드 1만 1,100 유로, 헝가리 1만 1,000유로이다. 체코, 헝가리는 인구가 각각 1천 만, 슬로바키아는 5백 만 인구가 인구 3천 만인 폴란드보다 소규모의 국가이나, 1인당 GDP는 더 높다(표 2-1 참고).

표 2-1. V4 국가의 경제 현황(2015년 기준)

지역	인구수 (천 명)	명목 GDP (억 유로)	1인당 명목 GDP(유로)	2015년 경제성장률
EU 28	508,293	146,351	28,800	2.0
체코	10,538	1,669	15,800	4.5
헝가리	9,856	1,087	11,000	2.9
폴란드	38,006	4,277	11,100	3.6
슬로바키아	5,421	781	14,400	3.6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9. 28).

인구 1천 만 이하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3)</sup> 개방경제의 특징상 대외 경제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위기 발생 시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2-1]에서와 같이, 2009년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각각 -4.8%, -6.6%, -5.5%의 음(-)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후 2010년 남유럽 중심의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유럽 내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헝가리, 체코 중심으로 다시 음(-)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폴란드는 앞의 세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인구가 뒷받침되는 내수 위주의 경제로, 대외 경제 환경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V4 국가 중 유일하게 2008~15년 동안 연속으로 양(+)의 성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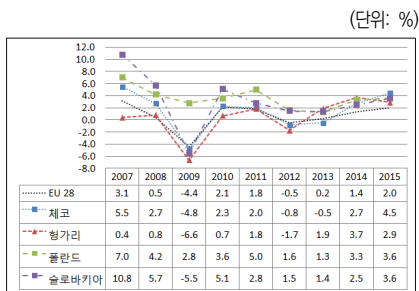
2013년부터 유럽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면서 V4 국가의 경제는 위기 이전

12)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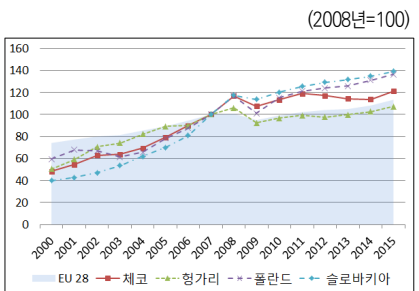
13)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에 설명하도록 한다.

의 GDP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2-2]와 같이 2008년 GDP를 100으로 볼 때, 슬로바키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여 2008년 GDP 대비 140% 성장을 보이고 있다. 체코의 경우 2014년에 주춤하였으나 주요 수출국인 독일 등 유로존으로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12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림 2-1.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경제성장률      그림 2-2. V4 국가의 실질 GDP 추이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4).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4).

V4 국가의 경제성장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 2-3]과 같이,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며 고용지표가 악화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V4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7.7%로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인 9.4%보다 낮은 수준이다. V4 국가의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증가세에 있었으나 EU 주요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국면에 접어든 2013년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체코는 2015년 기준 EU 2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4.6%) 다음으로 낮은 수치의 실업률인 5.1%를 기록했다. 그 외 국가의 실업률은 헝가리 6.8%, 폴란드 7.5%로 EU 28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EU 28개 회원국 평균 수치보다 다소 높지만 전년 대비 1.7%p 낮아진 11.5%를 기록하였다.

V4 국가의 청년 고용지표 또한 국별로 편차가 있으나 위기 이후 개선세에 있다. [그림 2-4]는 만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V4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적게는 19.5%(2012년 기준 체코), 많게는 34%(2012년 기준 슬로바키아)까지 치솟았다.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체코의 청년실업률은 12.6%, 헝가리는 17.3%로 EU 28개국 평균 청년실업률인 20.3%를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 기준 폴란드의 청년실업률은 20.8%로 EU 28개국 청년실업률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26.5%로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sup>14)</sup> V4 국가들은 자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촉진 정책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그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5)</sup>

한편 EU가 가입하면서 유로존 가입 조건인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면 유로존 가입이 필수적이거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하 3개국은 유로존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성장에 개별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유로화 도입 시기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6)</sup> 체코, 헝가리와 폴란드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조정제도(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를 평가절하나 환율의 급변동 없이 적용해야 하나,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sup>17)</sup> 각국의 고유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다.<sup>18)</sup> 슬로바키아만 유일하게 2009년부터 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14)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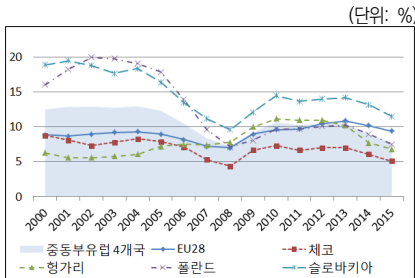
15) Pavel Chovanec, Director of Investment Project Department, 체코투자청(면담일: 2016. 6. 6).

16) Sobczyk(2016), 폴란드는 유로화 도입 시기를 2012년으로 목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요동치면서 유로화 도입을 유보하였다. 폴란드 현정부는 유로화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주요 교역국인 독일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수렴할 때 유로화 도입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 Peter Akos BOD(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6. 10. 8).

18) 체코의 화폐단위는 코루나(CZK), 폴란드는 즈워티(PNL), 헝가리는 포린트(HUF)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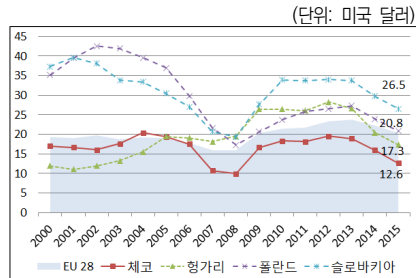
그림 2-3.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실업률 추이



주: 2000년부터 2015년 연간 평균자료임. EU 28은 유럽 연합 28개국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4).

그림 2-4. EU 28개국 및 중동부 4개국 만 25세 이하 청년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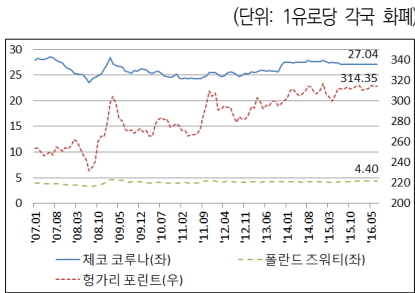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4).

2013년 이후 EU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로 이어졌으며, 각국의 화폐는 평가절상 압력이 존재했다. V4 국가의 중앙은행은 유로화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 상승이 수출 감소와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에 개입했다. 체코중앙은행은 2013년 이후 체코의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자 했으며, 이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다. 체코의 코루나 환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평가절상되어 왔으며, 이는 수출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수출기업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9년 6월 1유로당 26.8코루나를 기록한 이후 4년만인 2014년 초반 1유로당 27코루나를 돌파했으며, 당분간 체코중앙은행의 개입으로 1유로당 27코루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통화 가치도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헝가리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약 0.25%p씩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를 2.1%로 운영했으며, 1유로당 헝가리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헝가리 화폐의 평가절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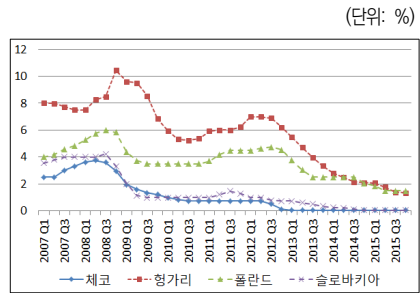
한편 대외 개방도가 높은 체코와 헝가리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경영계에서는 유로존 가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경영계에서는 유로를 결제통화

그림 2-5. 체코, 헝가리, 폴란드 환율 변동 추이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7. 19).

그림 2-6. V4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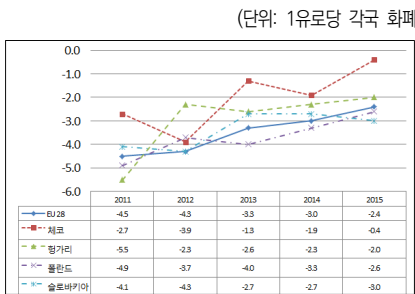
주: 2015년 4/4분기 기준 각국의 금리는 다음과 같음. 체코 0.05%, 헝가리 1.35%, 폴란드 1.50%, 슬로바키아 0.05%.

자료: Oxford Economics, <http://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검색일: 2016. 8. 14).

로 사용하고 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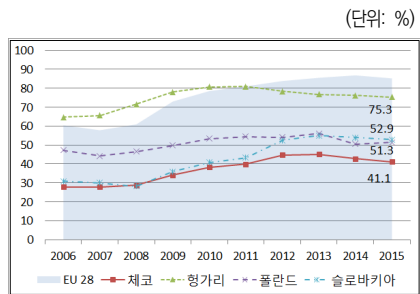
V4 국가의 정부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V4 국가의 GDP 대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모두 3% 이하로 EU의 SGP<sup>20)</sup> 조건을 만족하였다. 정부부채 또한 헝가리(75.3%)를 제외하고 모두 GDP 대비 60% 이하로 체코 41.1%, 폴란드 51.3%, 슬로바키아 52.9%를 기

그림 2-7. V4 국가 및 EU 28개국 재정수지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4).

그림 2-8. V4 국가 및 EU 28개국 정부부채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4).

19) Jaromir Stefl, International Relations, 체코자동차협회(AIA)(면담일: 2016. 6. 6).

20) SGP(Stability and Growth Pact)는 EU의 안정성 및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하,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를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함.

록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에서는 보육비 지원, 조세감면 등 긴  
축완화 정책<sup>21)</sup>의 시행으로 재정 수지의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 2.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 변화 및 특징

### 1) V4 국가의 경제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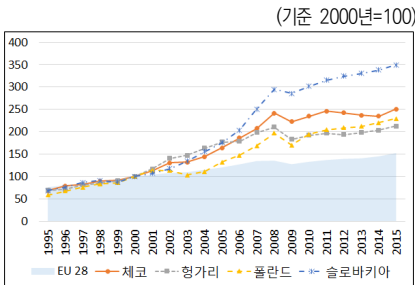
V4 국가의 경제 규모는 EU 가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0년대 초  
반부터 지속적인 고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V4 국가  
가 EU에 가입한 시기인 2004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V4  
국가의 경제 규모는 2000년 대비 최대 3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하였으나,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은 2010~12년 유럽재정위기를 거쳐 성장이 더뎠  
으나, 2014~15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2000년  
대비 2015년 국별 경제성장 규모는 슬로바키아 3.5배, 체코 2.5배, 헝가리 2.1  
배, 폴란드 2.3배로 EU 28개국 평균 성장 규모인 1.5배를 크게 상회한다. 이  
기간 동안 V4 국가의 경제 규모는 EU 28개국의 수준으로 수렴해갔다. 2004년  
기준 중동부 4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EU 28개국 대비 61%에 불과했으나  
2015년 기준 75%까지 성장했다. 국별로 살펴보면, EU 28개국 대비 체코는  
78%에서 87%, 헝가리는 62%에서 68%, 폴란드는 49%에서 68%, 슬로바키아  
는 56%에서 76%까지 성장했다(그림 2-9, 그림 2-10 참고).

EU 가입 이후 V4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 요인은 크게 교역 증대, 투자 유입  
규모의 증가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시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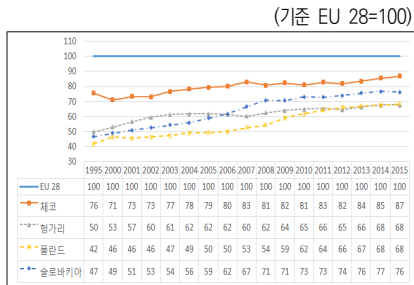
21) Jan Filip Stani 1 ko, 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Department, 폴란드 경제개발부(면담일  
2016. 6. 14). 2015년 후반에 구성된 폴란드의 새 정부는 저임금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 연금개시연  
령 하향조정, 조세감면,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9. V4 국가의 GDP 증감 추이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9. 29).

그림 2-10. EU 28개국 대비 V4 국가의 1인당 GDP 수준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9. 29).

## 2) 무역 및 투자 규모의 변화

EU 가입 이후의 V4 국가의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로의 막대한 자금유입과 무역 규모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제시된다. V4 국가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10개 국가의 EU 가입<sup>22)</sup>으로 이들 국가는 서유럽과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EU 회원국보다 노동력 비용이 저렴해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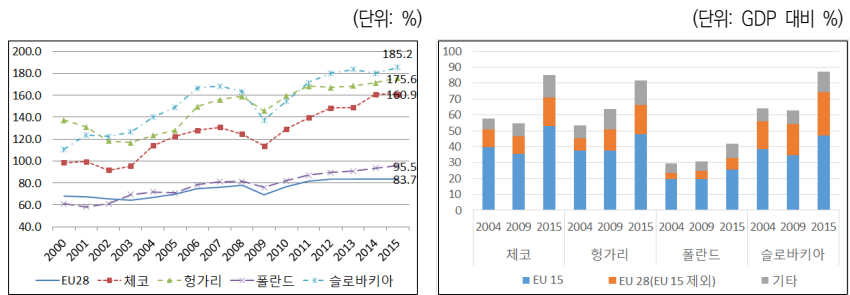
V4 국가의 교역 규모의 증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다. V4 국가의 공식적인 EU 가입 시기는 2004년이나, 2000년대 초반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EU와의 교역에서 무관세화가 완료되면서 V4 국가의 무역 규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림 2-11]에서와 같이, V4 국가의 무역개방도를 살펴보면 EU 가입 시기인 2004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09년 대외경제의 악화로 V4 국가의 무역개방도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후 회복하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기는 2004년과 2007년으로 나뉜다. V4 국가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8개국은 2004년에 가입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에 가입하였다.

국가별로 무역개방도는 2015년 기준 슬로바키아 185.2%, 헝가리 175.6%, 체코 160.9%이며, 폴란드는 앞의 3개 국가보다는 낮은 95.5%이다. V4 국가 모두 EU 28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V4 국가가 EU로 편입되면서 서유럽 회원국의 투자가 많이 유치되었으며 역내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림 2-12]과 같이, V4 국가의 교역 상대국에서 기존 EU 15 회원국<sup>23)</sup>의 비중이 대체로 GDP 대비 40%(2004년)에서 50%(2015년)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V4 국가의 EU 가입 전후 무역구조의 변화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나타났다. 양적 변화 측면에서 V4 국가의 GDP 대비 수출의존도(상품, 서비스)가 [그림 2-13]과 같이 2004년과 201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기준 V4 국가 평균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55% 정도였으나, 2009년 4.7%p 증가하였으며 2015년 8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질적 변화 측면에서 V4 국가는 EU 가입 시기 전후로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및 운송

그림 2-11. V4 국가의 무역 개방도      그림 2-12. V4 국가의 수출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주: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의 총교역량 (수출+수입) 비중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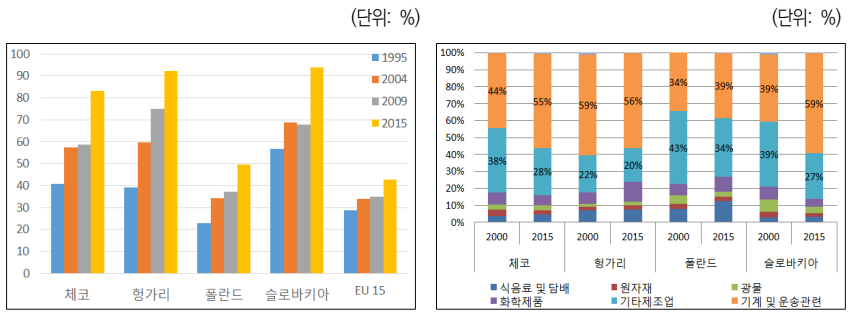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9. 29).

23) EU 15 회원국은 중동부유럽이 2004년 EU에 가입하기 전의 기존 15개의 EU 회원국을 의미하며,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상품과 기타 제조업 관련 상품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였다. [그림 2-14]에 의하면, SITC 기준 V4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제조업 위주의 기계 및 운송관련 상품과, 기타 제조업 관련 상품으로, 이는 전체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EU 가입 전인 2000년과 이후 2015년의 주요 품목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기계 및 운송 관련 품목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헝가리의 경우 해당 품목에서 2000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화학제품 수출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EU 가입 이후 V4 국가는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모하였다.

그림 2-13.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그림 2-14. V4 국가의 대전 세계 품목별 비중 수출 추이 변화(2000년, 2015년)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9. 29).      주: SITC 기준.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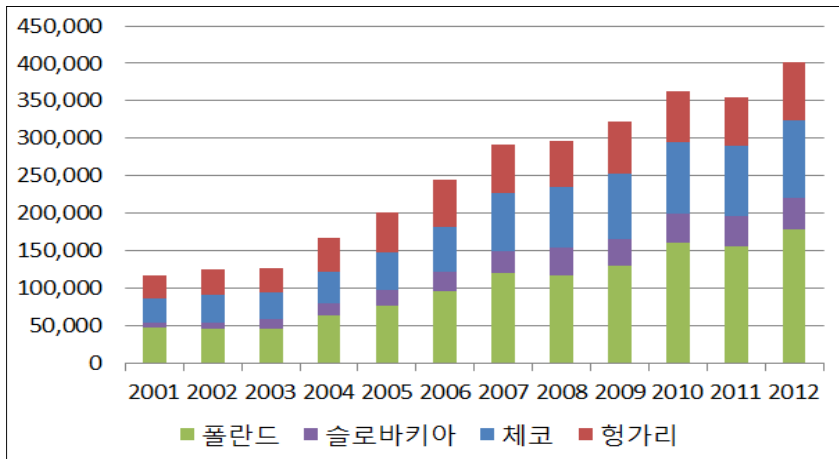
V4 국가의 EU 가입으로 무역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V4 국가로의 FDI 유입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EU 가입으로 V4 국가들 또한 기존 EU 국가들과 같이 투자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15]와 같이, 2000년대 초반 주춤했던 FDI 유입은 2004년 전후로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의 FDI 유입은 민영화 기업 인수 이후 재투자나 그린필드 투자 형태로 본격

적으로 이루어졌다.<sup>24)</sup>

FDI 유입은 주로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주요국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 외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일찍이 서유럽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중동부유럽에 투자했으며 한국은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중동부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림 2-15. V4 국가 FDI 유입(누계기준)

(단위: 백만 유로)



주: FDI 유입 누계.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8).

### 3) 산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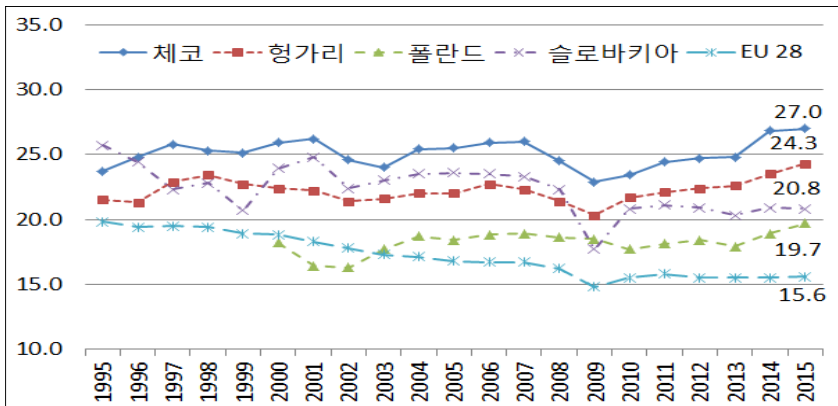
V4 국가는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6]과 같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발달 등으로 탈제조업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24) Szunomar and McCaleb(2015), p. 11.

에서, V4 국가의 제조업 비중은 EU 28개국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소폭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EU 28개국의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증가세에 있다. EU 28개 회원국에서 평균 제조업 비중은 1995년 기준 20% 정도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5년 기준 15.6%로 제조업 비중이 4.4%p 감소하였다. 반면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제조업 비중은 1995~2015년에 2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헝가리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나타난다. 폴란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16~20%로 동 기간 중 위의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 비중 증

그림 2-16. 제조업의 비중 변화

(단위: 총부가가치 대비 %)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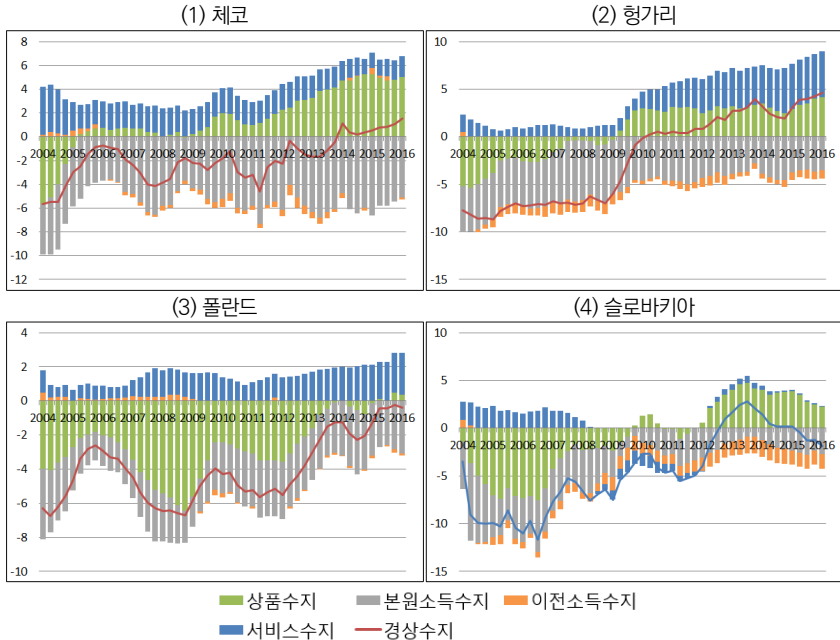
가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체제 전환 이후인 1990년대 후반,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 시기인 2004년 전후,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다. 이들 국가가 체제 전환 및 EU 가입을 하면서 서유럽으로부터 대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이후 EU 역내 공급사슬 체계의 변화로 중동

부유럽이 서유럽의 생산기지화 되었다. 또한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으로 중동 부유럽에서의 서유럽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역의 국가의 생산기지 또한 이들 국가로 대규모 유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중동부유럽 4개국의 제조업 비중을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림 2-17]은 중동부유럽 4개국의 경상수지의 변화 추이를 나타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3개국은 연도별로 등락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슬로바키아의 경상수지 또한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제조업 비중 추이의 감소와 더불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7. 경상수지 및 경상수지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4분기 이동평균 수치임.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7. 19).

V4 국가의 경상수지 개선 현상은 각 국가의 상품수지 개선이 기인하는 바가 크다. V4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되었다. 체코와 헝가리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에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상품수지 또한 2009년 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주춤하다 2012년 이후 흑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폴란드는 상품수지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2010년대까지 적자였던 폴란드는 2013년 이후 흑자 전환되었으며, 흑자폭이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EU 가입을 전후로 V4 국가가 서유럽의 생산기지로 전환하면서 수출 교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V4 국가를 서유럽의 생산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현지진출 기업이 V4 국가에서의 수익을 환류함에 따라 본원소득수지는 V4 국가 모두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제3장

K

#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와 그 특징

1.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 한·EU 무역관계와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특징
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4.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5. 소결

# 1.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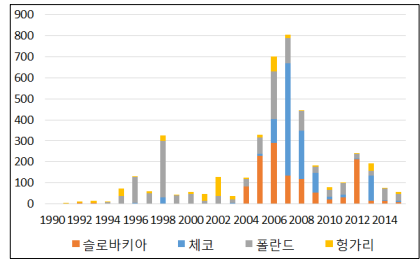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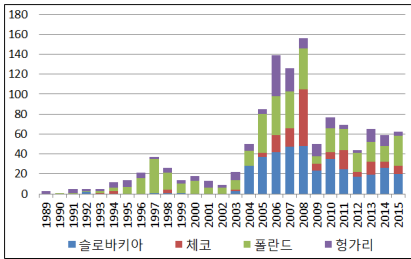
앞 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V4 국가는 1990년대 초반 전개된 체제 전환과 2004년 EU 가입 이후 경제 규모 변화, 교역 및 투자의 급격한 증가 등의 변화를 겪었다. 한국기업 또한 V4 국가의 체제 전환 및 EU 가입 전망에 따라, 해외 생산 네트워크 형성과 EU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건설 차원에서 1990년 이후부터 V4 국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림 3-1, 그림 3-2]의 한국의 V4 국가에 대한 투자 신고건수 및 투자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기인 2004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기업의 V4 국가 진출 형태는 크게 EU 시장 접근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과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참여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림 3-1. 한국의 대V4 국가 신고건수 추이      그림 3-2. 한국의 대V4 국가 투자

(단위: 건)

(단위: 백만 달러)



주: 법인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 1) EU 시장 접근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4개국 중 가장 먼저 한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진출이 이뤄진 곳은 폴란드로, 1995년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국영자동차회사인 FSO를 인수함으로써 협력업체와 함께 폴란드에 진출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의 파산으로 인한 매각과 폴란드에 함께 진출했던 협력업체들이 철수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은 소강상태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진하였다. 이후 폴란드의 EU 가입이 확정되고,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대규모의 생산공장이 건설되었다.<sup>25)</sup> 이후 2016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착공하면서 신규투자가 이뤄졌다.<sup>26)</sup>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현대-기아자동차가 유럽진출을 위한 대규모의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협력업체들이 대거 동반진출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2007년 삼성 LCD 공장의 진출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생산, 투자 진출국이 되었다.<sup>27)</sup> 체코에서는 2009년 현대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이후, 2017년 가동 예정인 현대모비스 헤드라이트 공장,<sup>28)</sup> 2016년 준공을 시작하여 2018년 가동 예정인 벡센타이어 공장<sup>29)</sup>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헝가리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은 다른 3개국에 비해서 규모는 작았으나, 2001년 삼성전기가 전자부품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현지공장을 건설하면서 한국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하였다.<sup>30)</sup> 이렇

25) 외교통상부(2009b), p. 52.

26) 『조선비즈』(2016. 10. 7).

27) 외교통상부(2009a), p. 92.

28) 한국무역협회(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6. 10. 8).

29) 벡센타이어(2014),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6. 10. 8). 벡센타이어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유럽의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공급할 타이어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독일 및 프랑스로의 접근이 우수하며, 반경 400km 이내에 자동차 완성업체 30여 곳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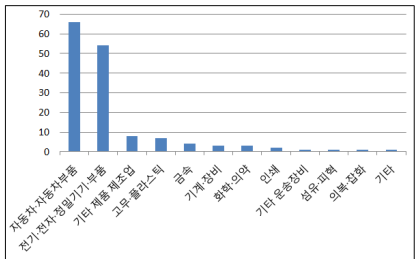


계 한국기업의 대V4 진출은 2004년 EU 가입 전후로 급격히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은 자동차, 전자관련 산업에 집중하여 대규모의 그린필드형 투자로 이루어졌다.<sup>31)</sup> KOTRA(2014)<sup>32)</sup>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V4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57%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한국기업이 대거 진출했다(그림 3-3 참고).

표 3-1. V4 국가 진출 한국기업 업종 수 및 비중      그림 3-3. 제조업의 세부 업종

업종	개수	비중
건설·공사업	10	3.8%
금융·보험업	1	0.4%
도매 및 소매업	63	23.8%
부동산 및 임대업	1	0.4%
기타서비스업	14	5.3%
운수업	25	9.4%
제조업	151	57.0%
총합계	265	1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를 중심으로 저자 작성.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를 중심으로 저자 작성.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한국기업이 자동차, 전자제품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대V4 국가로 진출한 것은 앞 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해당 국가의 EU 가입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함께 EU 시장 접근에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 위주의 부피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V4 국가는 한국기업의 대서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련 한국기업은 특히 한국의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이 위치한 체코 동부지역, 슬로바키아 서북부지역과 인접지역인 폴란드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빠르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30) 외교통상부(2012b), p. 84.  
 31) Szunomar and McCaleb(2015, p. 11, 재인용).  
 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형태이다(그림 3-4 참고). 이러한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은 일찍이 V4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독일의 대중동부유럽 진출 전략을 따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3)</sup>

그림 3-4. 한국 주요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



자료: 구글맵(<http://map.google.com>, 검색일: 2016. 8.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2004년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진출은 대기업이 현지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이를 뒤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져갔다. 이러한 방식은 현지생산 초기에 안정적인 부품조달선을 확보하고, 현지진출로 인한 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현지 부품업체와의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 등을 통해 공장을 설립, 이후 독자적인 공장운영을 실시해 온

33) Szunomar and McCaleb(2015, p. 11, 재인용). 독일의 자동차업계는 연구개발의 경우 자국에서 진행하나, 일찍이 V4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V4 국가의 낮은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과 생산환경을 활용하여 V4 국가를 생산기지화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현지 진출 이후 본청기업은 현지 업체로부터 부품조달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협력업체 또한 현지에서의 본청기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할 경우 환율 리스크에서 멀어질 수 있어, 경영위기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sup>34)</sup>

그러나 최근 5년간 V4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현지 진출업체의 상품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체코의 경우 독일보다도 낮은 실업률과 함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케이블과 같은 단순부품 공장의 경우 불가리아 등 EU 내의 상대적으로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 확장 시, 폴란드, 불가리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35)</sup>

표 3-2. 한국기업의 V4 국가 진출 현황, 특징 및 전망

시기	1990년대 중반	2004년 전후	2007년 이후	2010년 이후
특징	대우그룹 자동차, 전자분야의 폴란드 진출	EU 시장 진출을 위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 건설	생산기지 건설, 설비 확장 및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프로젝트 참여 신분야 진출
주요 진출 현황	'95년 대우자동차-전자(폴란드)	'01년 삼성전자(헝가리) '04년 기아자동차(체코) '05년 LG전자(폴란드)	'07년 삼성전자(슬로바키아) '09년 현대자동차(슬로바키아) '09년 한국타이어(헝가리)	'13년 공공프로젝트 참여 '16년 LG화학(폴란드) '17년 현대모비스(체코) '18년 넥센타이어(체코)
전망	-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은 당분간 지속 가능 - V4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단가의 증가 -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참여의 기회 확대			

자료: 저자 작성.

## 2) EU 기금을 활용한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생산기지 구축 이외에 또 다른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진출 형태는 중동

34) 이 인 법인장, 체코 동원금속(면담일: 2016. 6. 6).

35) Jaromir Stefl, International Relations, 체코자동차협회(AIA)(면담일: 2016. 6. 6).

부유럽의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V4 국가를 포함한 중동 부유럽은 후발국가로 EU 기금의 수혜를 받으면서, EU 기금을 활용한 대규모의 공공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EU 기금은 회원국간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지난 2007~13년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4~20년 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V4 국가는 2013~20년 사업의 EU 기금 예산(3,518억 유로) 중 37.9%인 133억 7,000만 유로의 EU 기금 예산을 배정받았다.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는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정보화 사업 등의 분야에서 서유럽 수준의 선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표 3-3 참고). 이처럼 V4 국가 내 환경, 인터넷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EU 기금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표 3-3. V4 국가의 EU 기금(2014~20년) 예산

국가	EU 기금 (십 억 유로)	비중 (%)	주요 운영프로그램
폴란드	76.8	21.8	인프라, 환경, 스마트한 성장, 디지털 폴란드 등
체코	21.6	6.1	수송, 기업혁신, 환경 등
헝가리	21.5	6.1	수송, 환경, 에너지 등
슬로바키아	13.8	3.9	수송, 환경, 정보화 사회 등
EU 기금 총계	351.8	100	-

자료: European Commission, Available budget 2014-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13); KPMG(2016), pp. 23-6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1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및 정리.

한국기업의 V4 국가 공공프로젝트 수주 진출의 예는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12년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 크라쿠프시의 생활폐기물 발전소 프로젝트이며, 이후 KT·대우 인터네셔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폴란드 마조비에츠키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수주에 성공하여 현지에 진출하였다(표 3-4 참고). 아직까지는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수주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관련 분야에 있어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각 정부에서의 현지 업체 선호, 현지어 입찰 서류 작성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현지 진출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외국기업이라는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된다.<sup>36)</sup>

표 3-4. 한국기업의 V4 국가 EU 기금 수혜 현황

국가	수주 기업	진출 프로젝트	수주액
폴란드 (크라쿠프)	포스코건설	생활폐기물 발전소	2억 5천 만 달러 (1억 9천 만 유로)
폴란드 (마조비에츠키에)	KT-대우 인터네셔널 컨소시엄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1,282억 원 (1억 5천 만 유로)
폴란드 (포들라스키에)	KT-대우 인터네셔널 컨소시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	230억원
폴란드 타우론전력	LG CNS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 (AMI, Automatic metering infra)	480억 원

자료: KT(2013); 『연합뉴스』(2013. 10. 4); 『디지털경제』(2015. 11.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한·EU 무역관계와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특징

### 1) 한·EU 무역관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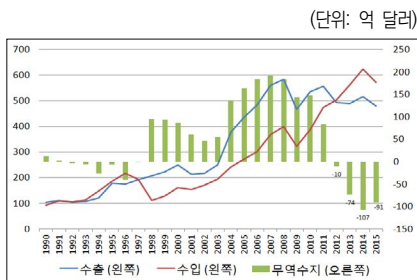
EU는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대EU 무역은 1990년 200억 달러에 채 못미치는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83억 6,000만 달러로 연평균 9%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0%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총수출 증가율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그림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EU 무역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흑자구조를 보여 왔다.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191억

36) 최현수, 폴란드 바르샤바 코트라 무역관 차장(면담일: 2016. 6. 13), 최근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기업 위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적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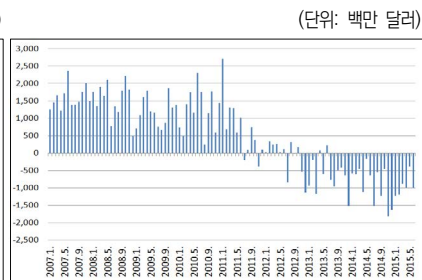
달리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는 같은 해 한국이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록한 최대의 무역흑자였다. 그러나 대EU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급감 이후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으나, 수입은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1~13년의 기간 중 유로존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EU의 수입수요 감소, 유로화 약세,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가가 더해지면서 대EU 무역흑자는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월별 무역수지는 대부분의 기간에 적자를 보였고, 같은 해 15년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sup>37)</sup> 적자 폭은 2013년 73억 7,000만 달러, 2014년 107억 4,000만 달러로 점차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91억 2,000만 달러로 축소되었고, 2016년에도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경제의 성장 약세 외에도 한국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국내 소비자의 선호변화 등 대EU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변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적자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 대EU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그림 3-6. 대EU 월별 무역수지 변화



주: 2007년 1월~2015년 6월의 자료.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37) 대EU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데 대한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강유덕, 김준엽(2013)을 참고할 것.

표 3-5. 최근 대EU 무역 현황

(단위: 1억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금액	583.8	466.1	535.1	557.3	493.7	488.6	516.6	480.8	115.9
	증감	(4.3)	(-20.2)	(14.8)	(4.1)	(-11.4)	(-1.0)	(5.7)	(-6.9)	(8.7)
수입	금액	399.8	322.3	387.2	474.2	503.7	562.3	623.9	572.0	123.6
	증감	(8.6)	(-19.4)	(20.1)	(22.5)	(6.2)	(11.6)	(11.0)	(-8.3)	(-11.6)
무역	금액	983.6	788.4	922.3	1,031.5	997.5	1,050.9	1,140.5	1,052.8	239.5
	증감	(6.0)	(-19.8)	(17.0)	(11.8)	(-3.3)	(5.4)	(8.5)	(-7.7)	-
무역수지	금액	183.9	143.8	147.9	83.0	-10.0	-73.7	-107.4	-91.2	-7.7
	증감액	-7.6	-40.2	4.1	-64.8	-93.1	-63.7	-33.6	16.2	-

주: 1) ( ) 안은 전년동기간 대비 증가율.

2) 2016년은 1~3월의 자료.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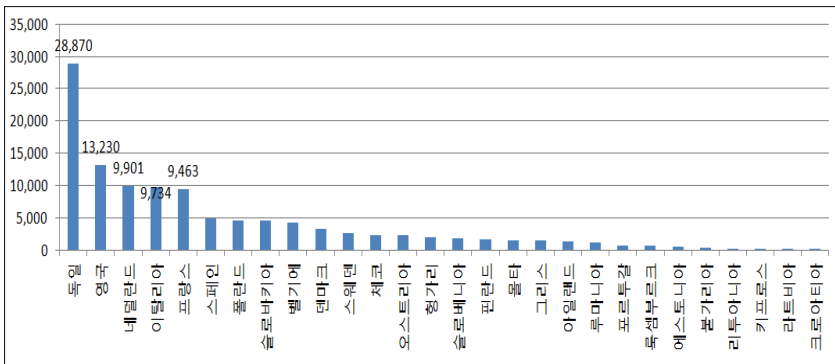
## 2) 한·EU 무역관계의 특징

EU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인식되지만, EU 회원국은 시장규모와 소득수준, 산업특화에 있어서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EU 회원국 무역은 크게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으로 양분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3-7]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대EU 무역은 2014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서로 많으며, 상위 5개국과의 무역은 대EU 무역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동부유럽 11개국과의 무역은 총 대EU 무역의 15.8%에 불과하다. 또한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공통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독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4년 137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림 3-9 참고). 반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등 대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일괄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보인다(그림 3-10 참고). 대중동부유럽 무역흑자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간의 기업 내 무역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된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를 통해 한국-중동부유럽-서유럽을 잇는 공급사슬이 형성된 것을 시사하는데, 중동부유럽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서유럽 시장으로 재수출된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차원에서의

그림 3-7. EU 회원국과의 무역(수출+수입,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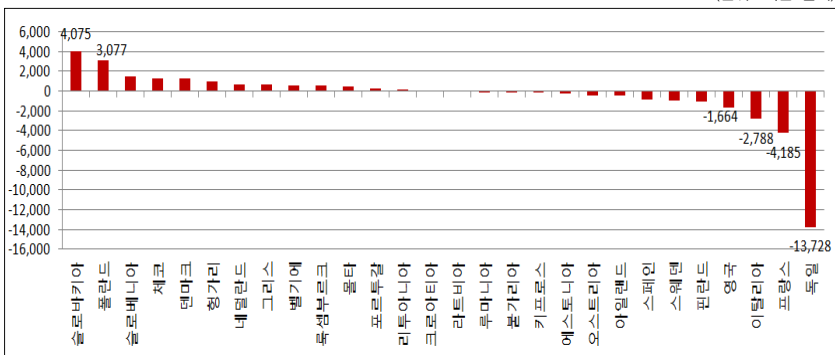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그림 3-8. EU 회원국과의 무역수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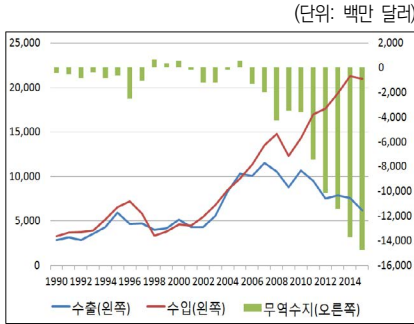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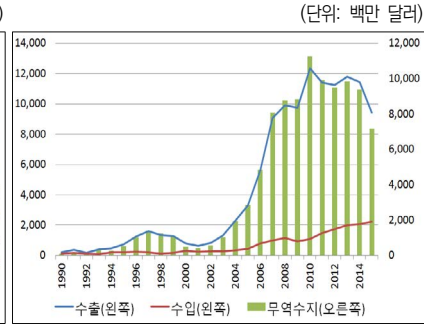


그림 3-9. 대독일 무역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그림 3-10. 대중동부유럽 4개국 무역



주: 중동부유럽 4개국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무역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서유럽 무역수지 적자는 관세부여 기준으로 구해진 통계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을 점검해 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6]은 2014년 기준 서유럽 및 중동부유럽 주요국에 대한 5대 수출품목(MTI 3단위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서유럽 4개국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주를 이루며, 상당수의 품목이 최종재이다. 반면에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며,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가령 대슬로바키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이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체코, 대폴란드 수출은 자동차 부품과 평판디스플레이가 각각 45.4%와 3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EU 역내외의 GVC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표 3-6. 서유럽 및 중동부유럽 주요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단위: 2014년 기준, 백만 달러)

서유럽				중동부유럽			
	총계	7,571	비중		총계	4,299	비중
독일	741. 자동차	1,410	18.6	슬로바키아	836. 평판디스플레이	1,266	29.4
	831. 반도체	685	9.0		742. 자동차부품	985	22.9
	812. 무선통신기기	560	7.4		711. 원동기 및 펌프	356	8.3
	746. 선박	431	5.7		821. 영상기기	225	5.2
	742. 자동차부품	398	5.3		813. 컴퓨터	183	4.3
	총계	2,639	비중			총계	1,812
프랑스	741. 자동차	548	20.8	체코	742. 자동차부품	822	45.4
	812. 무선통신기기	315	11.9		711. 원동기 및 펌프	155	8.6
	835. 건전지 및 축전지	128	4.9		741. 자동차	74	4.1
	746. 선박	127	4.8		214. 합성수지	55	3.0
	742. 자동차부품	107	4.1		790. 기타기계류	50	2.8
	총계	5,783	비중			총계	3,850
영국	741. 자동차	1,450	25.1	폴란드	836. 평판디스플레이	1,160	30.1
	831. 반도체	493	8.5		821. 영상기기	440	11.4
	812. 무선통신기기	453	7.8		613. 철강판	165	4.3
	746. 선박	422	7.3		826. 조명기기	161	4.2
	133. 석유제품	257	4.4		742. 자동차부품	145	3.8
	총계	3,473	비중			총계	1,481
이탈리아	741. 자동차	616	17.7	헝가리	746. 선박	527	35.6
	613. 철강판	422	12.2		836. 평판디스플레이	155	10.5
	214. 합성수지	411	11.8		741. 자동차	108	7.3
	812. 무선통신기기	230	6.6		821. 영상기기	85	5.7
	746. 선박	214	6.2		214. 합성수지	85	5.7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 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한국과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이들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EU 가입 전망에 따른 해외생산 네트워크 형성, EU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건설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투자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초까지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투자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는 연간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서유럽 투자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가령 1999년 V4 국가에 대한 투자는 4,480만 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대EU 전체 투자액인 2억 9,000만 달러의 15.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sup>38)</sup> 반면에 2004년부터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같은 해 대EU 전체 투자(11억 달러)의 63.6%를 차지하였고, 이듬해에는 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대EU 투자는 대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당시 한국기업들은 중동부유럽에 생산시설을 건설, 확장하였다.<sup>39)</sup>

표 3-7. V4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중동부 4개국		EU
					투자액	대EU 투자 중 비중	
1990	0.0	0.0	0.0	0.0	0.0	0.0%	66.6
1991	0.0	0.0	0.5	2.7	3.3	2.1%	156.4
1992	0.0	6.1	0.0	4.2	10.3	4.9%	210.8
1993	1.0	4.7	1.0	6.8	13.4	7.8%	172.3
1994	3.0	0.0	5.1	4.8	13.0	3.6%	363.0
1995	0.3	0.2	38.1	35.2	73.8	12.0%	612.9
1996	5.6	0.0	123.1	0.9	129.7	24.6%	527.9
1997	0.0	1.8	49.8	9.0	60.6	11.8%	513.0
1998	28.5	2.0	268.6	27.7	326.8	31.3%	1,044.5
1999	0.0	0.0	40.1	4.8	44.8	15.4%	290.4
2000	0.0	0.0	48.6	9.7	58.2	22.2%	261.9
2001	0.0	0.0	13.6	33.0	46.6	2.2%	2,070.8
2002	0.0	0.0	37.8	89.2	127.0	12.3%	1,032.1
2003	5.5	0.5	16.9	13.3	36.2	15.8%	229.7
2004	0.0	83.9	36.1	3.7	123.6	17.6%	700.4
2005	10.1	227.8	78.1	12.6	328.6	56.1%	585.9
2006	111.8	291.1	226.9	70.5	700.3	63.6%	1,100.9

38) 당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대중동부유럽 투자를 대EU 투자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39) Szunomar and McCaleb(2015, p. 11)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대부분 그린필드 형식으로 생산시설 신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표 3-7. 계속

연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중동부 4개국		EU
					투자액	대EU 투자 중 비중	
2007	535.7	134.1	118.5	15.4	803.8	24.2%	3,326.3
2008	230.5	118.0	93.5	2.8	444.8	18.1%	2,460.9
2009	93.9	53.1	28.9	7.7	183.7	4.1%	4,439.1
2010	13.5	22.3	29.4	13.8	79.0	1.4%	5,799.2
2011	12.3	31.4	55.5	1.3	100.6	2.7%	3,784.5
2012	2.6	211.8	22.4	0.5	237.3	6.4%	3,711.6
2013	118.4	15.9	21.6	37.9	193.8	5.2%	3,756.2
2014	4.5	14.6	54.4	0.7	74.2	2.4%	3,062.9
2015	6.6	8.9	32.5	8.4	56.5	2.8%	2,048.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투자가 증가와 함께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였다. 2000년 V4 국가에 대한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총 대EU 수출의 3.2%에 불과했으며, 4개국 중 경제 규모가 제일 큰 폴란드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대한 수출은 각각 6,600만 달러, 1,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부터인데 2000~08년의 기간 중 수출은 14배 증가하였고, 2009년 이후 V4 국가에 대한 수출은 총 대EU 수출에 있어 20%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은 4개국 모두에 있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수출 변화이다. 2015년의 대체코, 대슬로바키아 수출은 2000년대비 각각 31배와 305배 증가한 것이다.

표 3-8. V4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중동부 4개국		EU
					수출액	대EU 수출 중 비중	
1993	57	16	241	83	397	3.7%	10,588
1994	90	5	276	102	472	3.9%	12,061
1995	132	25	411	169	736	4.2%	17,418

표 3-8. 계속

연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중동부 4개국		EU
					수출액	대EU 수출 중 비중	
1996	188	106	782	184	1,260	7.4%	17,001
1997	175	26	1,226	176	1,604	8.5%	18,835
1998	106	53	1,002	184	1,346	6.6%	20,377
1999	92	23	1,022	159	1,296	5.9%	21,902
2000	66	12	528	180	786	3.2%	24,678
2001	73	10	337	228	648	3.1%	21,096
2002	109	17	349	364	839	3.5%	23,732
2003	158	110	382	661	1,311	4.9%	26,980
2004	313	357	807	807	2,284	6.0%	37,830
2005	339	692	1,175	1,099	3,305	7.6%	43,659
2006	564	1,267	2,613	1,201	5,645	11.7%	48,450
2007	966	2,707	3,509	1,890	9,071	16.5%	54,936
2008	829	3,462	4,117	1,513	9,921	17.3%	57,502
2009	771	3,137	4,147	1,704	9,759	21.1%	46,149
2010	1,165	4,424	4,381	2,385	12,355	23.3%	52,919
2011	1,713	4,103	4,101	1,476	11,392	20.7%	55,086
2012	1,786	4,624	3,677	1,157	11,245	23.0%	48,827
2013	1,683	4,407	3,601	2,114	11,804	24.5%	48,251
2014	1,812	4,299	3,850	1,481	11,442	22.5%	50,849
2015	2,040	3,543	2,807	1,016	9,408	20.0%	47,133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 4.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 1) 해외 직접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

해외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해외투자가 무역, 특히 수출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양자 간에 보완적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수직적 해외투자이론에 따르면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은 국가간 요소 가격 차

이에 따른 생산비용의 차이이다.<sup>40)</sup> 가령 해외의 노동비용이 저렴할 경우 국내에서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 경우 중간재의 조달원이 국내인지 또는 현지인지, 완성품의 최종 소비지가 국내인지(재수입) 또는 해외인지에 따라 무역대체 또는 보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중간재가 국내에서 보급되고, 완성품의 최종 소비지가 국내일 경우, 수직적 해외투자는 무역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무역과 보완관계가 성립된다.<sup>41)</sup> 반면 중간재의 국내보급이 없고, 완성품 또한 현지에서 소비될 경우 해외투자는 무역과 대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수평적 해외투자는 본국과 투자 대상국 간의 요소부존의 정도가 유사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수송비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와 근접지역에 본국과 유사한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기업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와 본국과 투자 대상국 간의 무역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수평적 해외투자에서는 본국과 유사한 최종재를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최종재 수출과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sup>42)</sup>. 그러나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중간재 조달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수평적 해외투자는 수출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수직적 산업 내 무역,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이 혼재된 해외투자이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EU 시장에 무관세 수출을 위한 투자라는 점, 대기업과 많은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평적 해외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는 서유럽에 대한 재수출을 목적으로 중동부유럽의 임금수준이 서유럽 보다 낮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투자 이후 무역패턴을 볼 때 수직적 통합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수평적, 수직적 성격

40) Helpman(1984); Helpman and Krugman(1985).

41) Markusen and Maskus(2001).

42) Markusen(1983).

이 결합된 혼합형 해외투자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이후 중간재 공급을 통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무역·투자 관계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한다.

## 2) 투자와 수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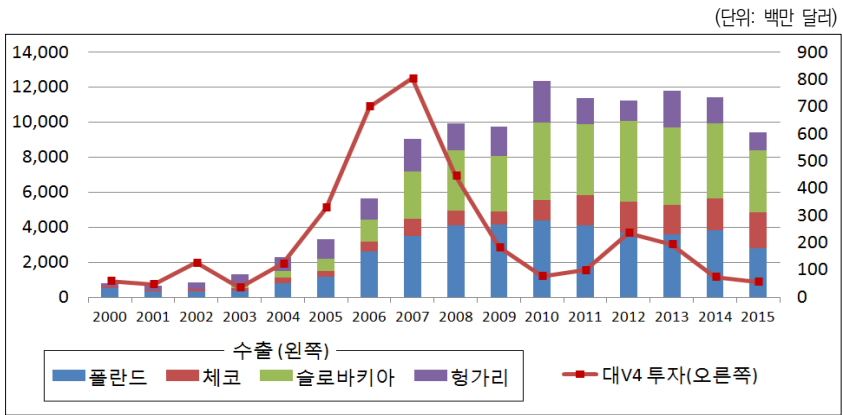
앞의 [표 3-5]와 [표 3-6]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 중반 집중된 한국기업의 투자가 대중동부유럽 수출증가를 이끌어낸 것은 명확해보인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림 3-11]을 통해서 대V4 국가에 대한 연도별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먼저 V4 국가에 대한 연도별 투자를 살펴보면 EU 확대시기인 2004~07년의 기간 중에 급증하였고, 투자증가와 함께 수출증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종료됨에 따라 연도별 투자액은 급감하였으나, 수출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10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8억 달러에 못 미쳤던 대중동부유럽 수출이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유지되는 이유는 2004~07년 중 투자를 통해 형성된 현지 생산설비를 위해 중간재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국의 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수출을 종속변수, 연도별 투자액과 누적투자액, 그리고 경제환경을 설명변수로 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투자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투자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투자액은 여러 변수와의 조합에 있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2010년 이후 4개국에 대한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4개국의 대서유럽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후술하겠으나, 현지진출 한국기업

---

43) 통계분석 결과는 부록을 참고할 것.

그림 3-11. 대V4 국가에 대한 수출과 투자



자료: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의 조달경로가 한국으로부터 현지기업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sup>44)</sup>

### 3) 산업별 투자집중도 비교

다음으로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수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 보기 위해 산업별 투자와 산업별 수출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3-9]는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13년의 기간 중 산업별 누적투자액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별 10대 주요 투자유치 산업을 살펴볼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 특정산업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44) 중동부유럽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인터뷰 결과 2015년 중 대V4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환율변화 외에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조달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동부유럽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정교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지투자 이후 현지조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전형적인 발전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현지조달 비중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투자는 전체 투자의 70%에 가까우며, 체코에서는 93.5%의 투자가 자동차와 관련 부품 분야에 집중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총투자의 70%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고, 헝가리에서도 동 분야는 총 투자의 1/3을 차지한다. 업종 중분류기준 상위 5대 산업은 모두 제조업이며, 5대 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에서 각각 97.6%, 96.8%, 93.5%에 이를 정도로 높고, 헝가리에서도 84.6%에 이른다. 이는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서유럽 투자패턴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투자통계를 앞서 살펴본 [표 3-7]의 품목별 수출통계와 조합할 경우 중동부유럽에 대한 산업별 투자는 산업별 수출 집중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중동부유럽을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9. 한국의 V4 국가에 대한 산업별 투자(2003~13년 누적)

(단위: 천 달러)

(1) 슬로바키아				(2) 체코			
	산업	투자	비중		산업	투자	비중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788,353	67.5%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951,960	89.2%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99,274	25.6%	2	자동차 및 부품 판매	45,706	4.3%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6,156	2.2%	3	1차 금속	14,409	1.3%
4	금속가공제품	20951	1.8%	4	가구	11,100	1.0%
5	사업지원 서비스업	5,312	0.5%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840	1.0%
6	1차 금속	5,206	0.4%	6	숙박업	6218	0.6%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595	0.4%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960	0.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356	0.4%	8	소매업	5,570	0.5%
9	임대업	3,356	0.3%	9	부동산업	5,472	0.5%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2,109	0.2%	10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4,680	0.4%
	총 투자	1,167,098	100%		총 투자	1,067,365	100%

표 3-9. 계속

(3) 폴란드				(4) 헝가리			
	산업	투자	비중		산업	투자	비중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20,688	59.2%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7,493	33.0%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978	16.6%	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2,670	15.7%
3	기타 운송장비	60,497	8.5%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704	14.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6,384	6.5%	4	1차 금속	15,977	11.1%
5	1차 금속	18,828	2.7%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5,038	10.4%
6	소매업	13,111	1.8%	6	기타 기계 및 장비	10,111	7.0%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2,407	1.7%	7	금속가공제품	3,141	2.2%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348	0.6%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97	2.1%
9	기타 제품 제조업	2,786	0.4%	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200	1.5%
10	전기장비 제조업	2,680	0.4%	10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07	0.7%
	총 투자	710,079	100%		총 투자	144,136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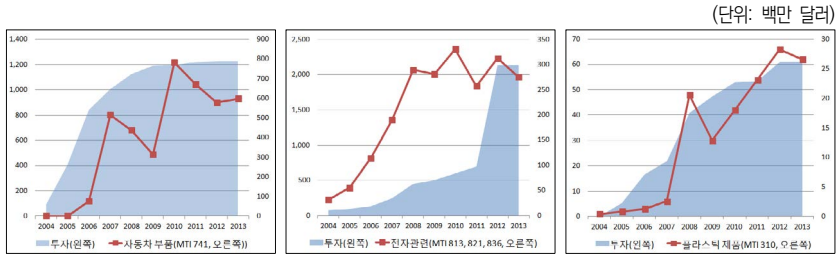
#### 4) 산업별 투자·수출 연계성 비교

마지막으로 각 산업별 누적투자액과 연도별 수출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003~13년 기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중분류 기준 전체 투자의 95%가 이루어진 자동차와 영상, 통신 등의 전자, 그리고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분야의 투자와 관련 제품의 수출추이를 비교하였다. 관련 제품은 MTI 3단위 기준 10대 주요 수출품 중에서 선정하였다. [그림 3-12]에서는 공통적으로 투자가 급증한 후 1~2년 이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전자분야(그림 3-12(2) 참

고)의 경우 투자에 앞서 수출이 먼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규모의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출은 계속 일정량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형성된 공급사슬로 인해 지속적인 중간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2. 슬로바키아 투자와 수출

- (1)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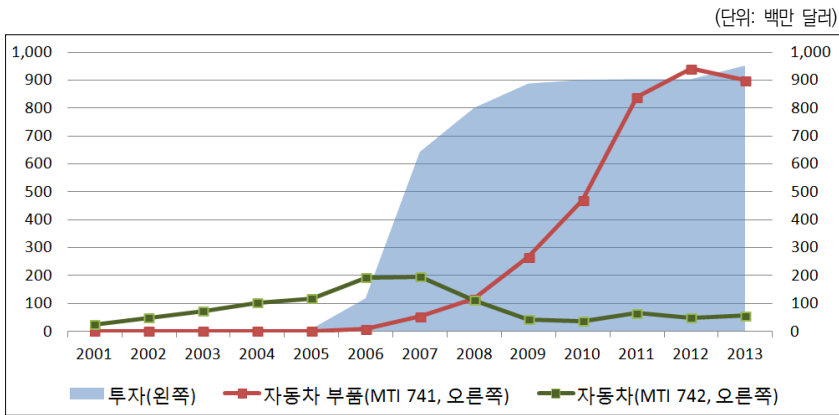


자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체코의 경우 전체 투자의 90%에 달하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수출을 비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체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2005~08년의 기간 중 집중적인 투자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13]에 나타난 대체코 자동차 부품 수출은 투자 이후 2~3년이 경과한 후 2007~12년의 기간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공급사슬이 형성 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체코 수출 주요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수출량이 2007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차에 대한 체코 내 수요를 현지생산 차량이 대체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전자 관련 투자가 총 투자의 대략 60%를 차지한다. 앞서 슬로바키아, 체코의 경우에 나타난 패턴과 마찬가지로 대폴란드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수출은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다소 시차를 두고 증가하였다.

그림 3-13. 대체코 자동차 생산 부문 투자 및 관련 수출



자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동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반면에 투자 이후 증가한 수출량이 계속 유지되는 체코,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분야와는 달리, 2010년 이후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유럽의 수입수요 감소 외에도 초기에 한국산 중간재를 조달하던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조달 비중을 늘리고 있거나, 투자를 철수하는 데 따른 현상일 것으로 판단된다.<sup>45)</sup> 자동차 분야의 경우 투자에 앞서 수출이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폴란드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에 따른 수입관세가 종전 6~15%에서 평균 4%로 낮아짐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된 점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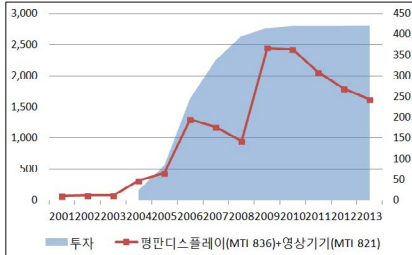
45) 한편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접경지역이 역외국 기업의 투자전략에 있어 하나의 생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기업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양쪽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고,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폴란드의 생산시설을 축소하고, 슬로바키아의 생산시설을 확장할 경우, 대폴란드 전자부품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 공장으로 한국산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폴란드 공장에 공급할 경우 통계적으로 대폴란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6.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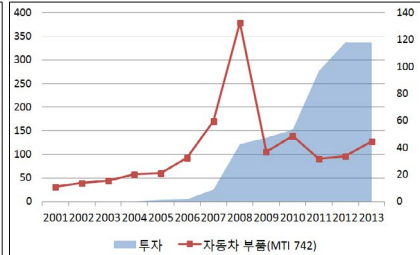
그림 3-14. 대폴란드 투자 및 수출

(단위: 백만 달러)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자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헝가리의 경우 2006년 전자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LCD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고, 2008년 말 삼성전자가 슬로바키아에 있던 LCD 생산라인의 일부를 헝가리로 이전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up>47)</sup> 화학분야에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특히 2010년 삼양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sup>48)</sup> 이후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헝가리 공장, LG 전자 폴란드 공장에 소재를 납품하면서 한국계 기업간의 중동부유럽 현지에서의 공급사슬이 형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 3-10]에서는 V4 국가에 대한 한국의 주요 누적 투자와 수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먼저 제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슬로바키아의 경우 [그림 3-12]에서 분석한 3개 산업군에 있어서 투자와 수출 간에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와 플라스틱 제품에 있어 상관관계는 모두 0.80 이상을 나타냈다. 대체코 투자의 경우 자동차 분야의 투자는 자동차 부품 수출과 0.73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완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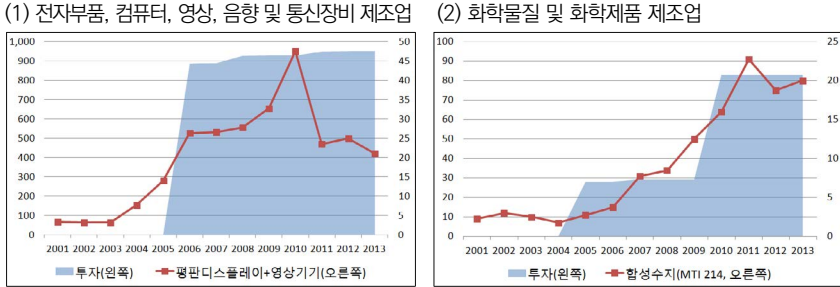
47) 조양현(2008), p. 3.

48) 『헤럴드경제』(2011. 3. 27).

수출인 자동차 수출과는 -0.59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수출(한국→체코)을 체코 현지생산이 대체한 결과이다.

그림 3-15. 대형가리 투자 및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폴란드의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투자와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0.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헝가리의 경우도 분석의 대상이 된 두 분야의 투자·수출 상관계수가 각각 0.92와 0.7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산업별 누적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국가	산업분야		
슬로바키아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4	0.60	0.94
체코	자동차 부품		자동차
	0.73		-0.59
폴란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0.83		0.03
헝가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92		0.70

주: 투자는 2004~13년 기간의 누적투자임.

자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수출-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30).

## 5.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EU 가입이 이루어진 직후로, 대규모의 투자 이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수출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중동부유럽의 경제 규모는 2013년 기준 EU GDP의 6.6%에 불과하지만, 2005~06년의 기간 중에는 한국의 총 대EU 투자 중 50% 이상이 중동부유럽에 집중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중동부유럽에 형성된 현지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은 '국내 부품조달-현지생산-서유럽 수출'이라는 공급사슬을 형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V4 국가에 대한 주요 산업별 투자와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들은 중동부유럽의 체제변환과 EU의 중동부유럽 확대에 따른 기회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EU 역내 분업체계에 기초한 공급사슬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둘째, 해외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는 우선 수출과의 보완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해외진출 시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해온 국내 대기업의 투자전략상 본국과의 밀접한 공급사슬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전후방 산업 연계성이 높고, 제품 차별화와 동시에 경쟁이 심한 산업의 경우 해외 생산시설 건설 시 국내 중간재 조달에 의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국내생산·직수출'의 수출패턴이 '해외생산·현지수출'로 대체되면서 최종재 위주로 수출 감소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지화가 이루어져, 조달선을 국내업체에서 현지업체로 점차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 제4장

K

#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 패턴 비교

1.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비교
2.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비교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 비교



앞 장에서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관계를 확인했다면, 이 장에서는 일본, 중국이 중동부유럽과 형성한 투자·무역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제조업 강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대중동부유럽 무역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흑자가 중동부유럽에 위치한 생산거점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면, 일본과 중국의 무역흑자가 한국과 유사한 투자·수출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및 무역 추이를 살펴보고, 이후 투자와 무역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 1.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비교

### 1)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한국, 중국, 일본 중 중동부유럽에 가장 먼저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마츠시타가 1996년 체코의 플젠(Plzen)에 대규모 TV 생산 공장을 세운 데 이어 1997년에는 도레이가 프로스테요프(Prostejov)에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동부유럽의 EU 진출 이전부터 투자를 실시했다.

[표 4-1]은 유럽통계청의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투자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투자는 일본, 한국의 투자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일단 직접적인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한국의 투자와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EU 확대시기에 집중되었으나 일본의 투자는 보다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유럽 통계청(Eurostat)은 일본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를 1998년 자료부터 제공

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체코 및 대폴란드 투자는 EU 확대가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2004년 직후에는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투자는 EU 확대 직후 급증하였다. 둘째, 한국이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던 데 반해 일본의 투자는 체코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Strach and Everett(2006, p. 23)에 따르면 일본의 대체코 투자는 1992~2004년의 기간 중 체코가 유치한 총 FDI의 23%에 이르는 반면, 슬로바키아에서의 일본의 FDI 비중은 유사한 기간(1990~2004년)에 슬로바키아에 유입된 총 FDI의 1%에 채 못 미친다. 셋째, EU 확대시기에 대규모의 투자 이후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일본기업들은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특히 2011~12년의 기간 중 일본기업들은 5억 2,000만 유로의 투자를 철회한 데 반해, 한국기업들은 13억 8,000만 유로의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국의 투자 차이는 [그림 4-1]에 나타난 연도별 투자포지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 투자포지션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포지션은 일본에 비해 2~3년 늦게 증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firm-level)에 대한 정교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거시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본의 중동부유럽 투자가 감소하면서 해외 생산시설의 이동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중동부유럽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투자포지션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투자 추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가입 준비 또는 가입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반면, 중국의 투자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다.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07년 중 이루어진 투자를 비교해볼 경우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둘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한국과 일본에

표 4-1. 일본과 한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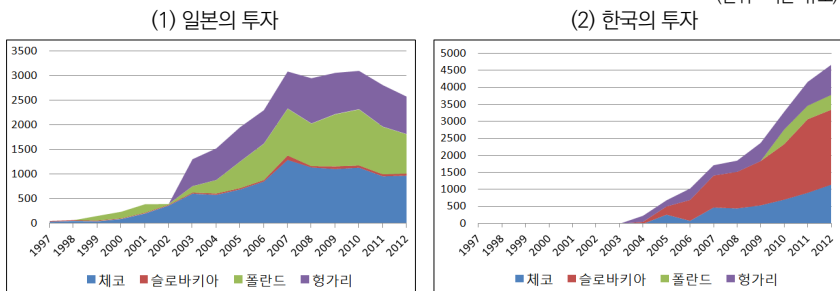
연도	일본의 투자					한국의 투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합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합계
1998	16	0	-	-	16	-	0	-	-	0
1999	-8	1	-	-	-7	-	0	-	-	0
2000	48	-3	40	-	85	-	0	-	-	0
2001	110	4	38	-	152	-	0	-	-	0
2002	162	-1	-155	-	6	-	-	-	-	0
2003	240	8	113	-	361	-	-	-	-	0
2004	-25	6	144	94	219	-	58	-	-	58
2005	110	0	265	56	431	266	184	-	4	454
2006	161	3	199	-19	344	-180	369	-	154	343
2007	437	61	214	72	784	389	326	-	-32	683
2008	-152	-64	-87	167	-136	-26	134	-	26	134
2009	-32	27	194	-80	109	89	226	-	205	520
2010	27	-8	80	-59	40	167	327	-	-14	480
2011	-175	-4	-174	65	-288	199	532	-31	177	877
2012	13	1	-164	-83	-233	239	37	40	185	501

주: 1) '-' 표시는 통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0인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된 투자액이 0인 경우를 의미함. 합계 산정에 있어 '-'는 0으로 처리하였음.

2) 기업의 신고 기준으로 미달리화 단위로 작성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와 달리 Eurostat의 통계는 국제수지대조표에 의해 유로화로 작성되는바, 상이할 수 있음. 특히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의 경우 통계가 없는 점에 유의가 필요.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그림 4-1. 일본과 한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포지션 추이 비교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0).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0).

비해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중국의 투자는 한국, 일본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도별 등락과 투자 회수현상이 심해서 FDI 데이터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투자와 같이 일관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49)</sup> Szunomar and McCaleb(2015, p. 10)에 따르면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2003~12년 누적 기준 5억 달러를 상회했다(그림 4-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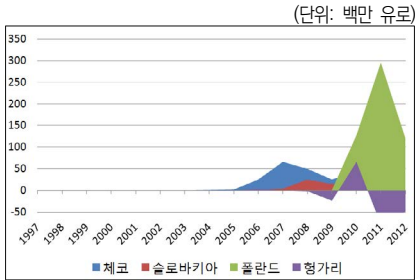
표 4-2. 중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 추이

연도	중국의 투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합계
1998	-	-	-	-	0
1999	-	-	-	-	0
2000	-	-	-	-	0
2001	-	-	-	-	0
2002	-	-	-	-	0
2003	-	-	-	-	0
2004	1	0	-	-	1
2005	1	0	-	0	1
2006	23	0	-	3	26
2007	41	4	-	-3	42
2008	-16	21	-	-2	3
2009	-25	-10	-	-22	-57
2010	17	2	-	90	109
2011	-79	23	169	-146	-33
2012	23	-10	-175	31	-131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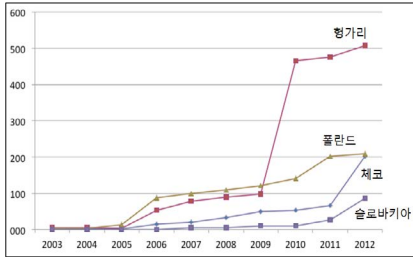
49)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파악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여러 문헌간 자료에 있어 신뢰성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Szunomar and McCaleb(2015, p. 10)는 중국 측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중국의 대체코 투자는 누적기준 2억 200만 달러, 대헝가리 투자는 5억 7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그림 4-2. 중국의 대V4 국가 투자포지션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0).

그림 4-3. 중국의 대V4 국가에 대한 누적투자 (2003-12년)



자료: Szunomar and McCaleb(2015, p. 10, 재인용).<sup>50)</sup>

## 2) 산업별 투자 패턴 비교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투자는 인수합병보다는 그린필드를 통한 현지 생산시설의 신설이 주를 이루며, 특히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4-3]과 [표 4-4]는 일본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중 제조업 부문의 투자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양국 투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류,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특히 운송장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sup>51)</sup> 둘째, 운송장비 생산에 있어 양국 모두 체코를 중요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산업별, 국가별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있어 양국의 투자가 갖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투자에 비해 한국의 투자는 훨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보인다. 언급한 3대 산업분야가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73.9%인 데 반해 한국은 94.7%에 이른다. 둘째, 일본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지만 한국의 투자는 슬로바키아에 집중적으

50) 재인용 통계임에 유의가 필요함.

51)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도요타는 체코와 폴란드에, 스즈키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다.

로 이루어져, 대V4 국가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대슬로바키아 총 투자의 절반에 이른다. 반대로 일본은 헝가리의 운송장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동 부문에 대한 한국의 대형가리 투자는 미미하다. 셋째, 일본의 대체코, 대형가리 투자의 경우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른 산업에도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투자는 대체코 투자는 운송장비, 대형가리 투자는 기계 및 장비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4-3. 일본의 대V4 국가 제조업 투자(1998~2012년 누적)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합계	비중
운송장비(차량)	318	-	292	528	1,138	41.1%
기계 및 장비류	94	4	309	122	529	19.1%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60	0	268	52	380	13.7%
석유화학, 플라스틱	180	21	134	12	347	1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류	150	-	35	59	244	8.8%
금속	58	-	14	6	78	2.8%
제약	54	0	0	-1	53	1.9%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용기기	0	-	3	0	3	0.1%
합계 (비중)	914 (33.0%)	25 (0.9%)	1,055 (38.1%)	778 (28.1%)	2,772 (100%)	100.0%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표 4-4. 한국의 대V4 국가 제조업 투자(1998~2012년 누적)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합계	비중
운송장비(차량)	1,096	1,319	87	5	2,507	48.8%
기계 및 장비류	0	721	182	819	1,722	33.5%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	637	-	-	637	12.4%
석유화학, 플라스틱	0	58	59	60	177	3.4%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류	-	61	-	-	61	1.2%
금속	-	32	-	-	32	0.6%
제약	-	0	-	-	0	0.0%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용기기	-	0	-	-	0	0.0%
합계 (비중)	1,096 (21.3%)	2,828 (55.1%)	328 (6.4%)	884 (17.2%)	5,136 (100%)	100.0%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의 경우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며, 투자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심도있는 비교분석을 위한 종합 통계 작성이 어렵다.<sup>52)</sup> 분야별 투자통계는 [표 4-5]에 요약, 정리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운송장비 분야에 집중되는 데 반해 중국의 투자는 기계 및 장비류의 비중이 높고, 폴란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4-5. 중국의 대V4 국가 투자(1998~2012년 누적)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합계
기계 및 장비류	77	45	458	165	745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8	38	172	130	348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용기기	0	11	2	35	48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 2.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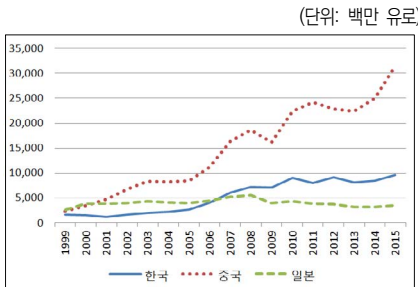
### 1) 수출추이 비교

앞에서 동아시아 3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추이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무역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4-4]와 [그림 4-5]는 각각 한·중·일의 대V4 국가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나타낸다. 무역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2000년 이후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의 수출은 전례없는 증가를 기록하였다. 1999년 23

52) 가령 Szunomar and McCaleb(2015, p. 10)이 인용한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대헝가리 투자는 누적 기준 5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보고 있으나, Eurostat 데이터에서는 2012년 중국의 대헝가리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포지션은 -1억 1,200만 유로, 서비스 분야는 +3억 3,400만 유로로 표시된다. FDI의 마이너스 값은 투자전환을 의미한다. 각 문헌간 통계의 차이와 FDI의 마이너스 값으로 인해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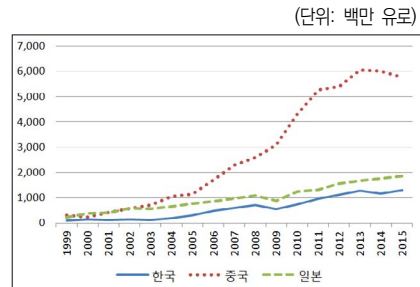
억 8,000만 유로였던 중국의 대V4 국가 수출은 2004년에는 82억 6,000만 유로로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2015년에는 314억 8,000만 유로까지 증가하였다. 1999~2015년 한국과 중국의 대V4 국가 수출은 각각 연평균 11.7%, 17.5%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불과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09년) 중 수출이 감소한 후 과거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006년까지 일본의 수출액은 한국의 수출액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역전되었다.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수출과 수입을 비교할 경우 한·중·일은 공통적으로 대중동부유럽 무역에 있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의 대V4 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율은 각각 7.3, 5.5, 3.0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한국, 중국, 일본의 대V4 국가 수출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0).

그림 4-5. 한국, 중국, 일본의 대V4 국가 수입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6. 8. 10).

## 2) 산업별 수출 비교

다음은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에 있어 품목별 구성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HS 2단위 기준으로 ①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HS 85) ② 차량(HS 87) ③ 기계



및 보일러(HS 84) ④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HS 9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품목들은 중간재로 한국의 투자와 병행하여 수출증가가 이루어졌다. 수출 1위 품목인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은 2009년 전체 수출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감소추이를 보였다. 반면에 차량 관련 품목은 수출량과 비중에 있어 모두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2003~15년의 기간 중 차량 관련 품목은 수출량이 7배 증가하였는데, 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현지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4-6. 한국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2003년		2009년		2015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979.1	49.7%	3,778.5	53.5%	3,131.7	32.7%
2 기계 및 보일러	351.5	17.9%	1,605.3	22.7%	1,790.8	18.7%
3 차량	249.3	12.7%	513.5	7.3%	1,514.3	15.8%
4 플라스틱제품	83.1	4.2%	482.1	6.8%	1,313.9	13.7%
5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40.6	2.1%	203.2	2.9%	413.3	4.3%
6 식물성유	38.8	2.0%	108.1	1.5%	240.7	2.5%
7 수가공 식물류	37.3	1.9%	89.6	1.3%	205.1	2.1%
8 철강제품	26.3	1.3%	43.8	0.6%	147.9	1.5%
9 고무류	19.5	1.0%	42.3	0.6%	138.5	1.4%
10 유리제품	15.6	0.8%	36.2	0.5%	120	1.3%
11 유기화학물	11.6	0.6%	28	0.4%	79.4	0.8%
12 금속도구류	7.7	0.4%	13.3	0.2%	75.2	0.8%
13 코팅섬유	7	0.4%	14.2	0.2%	51.1	0.5%
14 유리제품	8.1	0.4%	13.7	0.2%	47.1	0.5%
15 염료	8.3	0.4%	6.2	0.1%	44.2	0.5%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한국의 수출과 유사한 반면 특정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낮다. 2009년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HS 85)은 총 수출의

43.4%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은 2015년 27.9%로 감소한 반면 기계 및 보일러(HS 84) 관련 제품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차량(HS 87) 관련 부품의 경우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수출액과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과 2015년의 수출액을 비교할 경우 변화가 미미하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사실과 동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관계와 비교할 때 대조된다.

표 4-7. 일본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2003년		2009년		2015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1,620.4 37.4%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1,739.3 43.4%	기계 및 보일러	997.3 27.9%
2	기계 및 보일러	1,125.5 26.0%	기계 및 보일러	739.6 18.5%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903.4 25.3%
3	차량	599.5 13.8%	차량	605.1 15.1%	차량	545.0 15.3%
4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288.5 6.7%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364.4 9.1%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366.7 10.3%
5	플라스틱 제품	123.4 2.8%	플라스틱 제품	90.8 2.3%	플라스틱 제품	137.5 3.9%
6	철강제품	72 1.7%	철강제품	91.6 2.3%	철강제품	125.1 3.5%
7	고무류	68.3 1.6%	고무류	85.6 2.1%	고무류	115.5 3.2%
8	유기화학물	43.4 1.0%	금속도구류	58 1.4%	시멘트류	44.1 1.2%
9	기타 화학물	28.5 0.7%	철강	39.8 1.0%	철강	40.2 1.1%
10	사진, 영화제품	31.1 0.7%	기타 화학물	22.1 0.6%	수가공 섬유	26 0.7%
11	제약	26.6 0.6%	알루미늄	14.5 0.4%	무기화학물	25.2 0.7%
12	연료	23.6 0.5%	유기화학물	14.5 0.4%	금속도구류	22.9 0.6%
13	기타 제조제품	22.7 0.5%	제지	11.4 0.3%	기타 화학물	22.6 0.6%
14	기타 금속	20.7 0.5%	서적	11 0.3%	알루미늄	18.1 0.5%
15	선박구조물	21.8 0.5%	무기화학물	8.2 0.2%	유기화학물	15.1 0.4%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HS 85)과 기계 및 보일러 관련 제품(HS 84)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개 품목은 총 수출의 거의 70%를 차지한다.

표 4-8. 중국의 대V4 국가 품목별 수출(HS 2단위)

	2003년		2006년		2015년	
1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3,216.8 38.4%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7,456.6 46.3%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12,463.1 39.6%
2	기계 및 보일러	2,071.4 24.7%	기계 및 보일러	3,942.5 24.5%	기계 및 보일러	8,810.6 28.0%
3	완구 및 스포츠용품	278.6 3.3%	비편직의류	368 2.3%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867.7 2.8%
4	비편직의류	238.6 2.8%	가구	334.1 2.1%	가구	844 2.7%
5	편직의류	200.8 2.4%	편직의류	339.2 2.1%	플라스틱 제품	635.1 2.0%
6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183.1 2.2%	완구 및 스포츠용품	303.1 1.9%	차량	625.8 2.0%
7	신발	183.9 2.2%	플라스틱 제품	285.9 1.8%	철강	623.8 2.0%
8	가구	134.4 1.6%	철강	286.3 1.8%	완구 및 스포츠용품	612.2 1.9%
9	가족제품	134.3 1.6%	신발	256.8 1.6%	비편직의류	541 1.7%
10	플라스틱제품	126.6 1.5%	차량	247.7 1.5%	편직의류	453.4 1.4%
11	차량	129.7 1.5%	광학, 사진, 영상, 측정장비	182.4 1.1%	신발	427.7 1.4%
12	철강	126.4 1.5%	가족제품	141 0.9%	유기화학물	373.6 1.2%
13	유기화학물	107.8 1.3%	기초철강	133.9 0.8%	기초철강	338.1 1.1%
14	동물제품	94.1 1.1%	유리제품	122.6 0.8%	가족제품	319.2 1.0%
15	금속도구류	85.2 1.0%	유기화학물	114.1 0.7%	알루미늄	265.5 0.8%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8. 10).

###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이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2004년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출 또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3장에서 한국의 산업별 투자와 수출통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패턴은 유럽통계청(Eurostat)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특히 한국

의 투자가 집중된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가전 부문의 경우 관련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여 투자가 중간재 수출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국가간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sup>53)</sup>을 이루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 시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하는 투자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4)</sup> 대기업-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은 본국과의 밀접한 공급망 형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는 한국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투자가 증가한 2003~07년의 기간 중 수출 또한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투자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이 증가한 정도는 작다. 또한 일본의 투자 중 40%가 자동차 부문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증가폭은 미미하다. 이를 종합할 때,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 본국이 아닌, 현지 협력업체와의 공급사슬 형성을 통해 완성차를 생산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은 확대 시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경우 대중동부유럽 투자 확대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 양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중국 제조업의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수출증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3) 일반적으로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기업 관점에서 관련 산업 내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간 결합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관점에서 국가간 제조, 공급, 물류, 유통 등의 공급사슬 연계를 의미한다.

54) 『연합뉴스』(2016. 9. 19),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개 중 7개는 협력사와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대기업 1개가 평균 41개의 협력사와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



##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 1. 연구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동부유럽의 체제 전환과 EU 가입에 따라 중동부유럽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및 수출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투자 및 수출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3국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은 EU의 평균성장률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경제로 변화를 이룩해냈다. 많은 서유럽과 EU 역외의 기업들이 EU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써 중동부유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V4 국가 중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거시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이는 외자유치를 통해 견조한 제조업 생산능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맞아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춰나갔다.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철수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확대 시점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관련 산업에 있어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 대EU 투자는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동부유럽 투자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증가와 더

불어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투자와 수출을 매칭시켜 본 결과 한국기업의 투자, 다시 말해 현지 생산시설이 건설된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산업군에 속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투자가 수출을 유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본국과 해외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연계는 무역수지에 반영되어 대중동부유럽 무역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넷째, 투자와 무역 간에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관계에서 투자·수출 간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일본 본국이 아닌 현지 협력업체와의 공급사슬을 형성하여 완성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 및 일본과 달리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중동부유럽 수출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중국 내 제조업의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수출증가로 볼 수 있다.

## 2. 정책적 시사점

### 1)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이 연구의 수행 중 현지 인터뷰 결과 중동부유럽의 투자유치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역외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중동부유럽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은 두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 자본에 입각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국내기술력으로 평가받기 힘들며, 국내외적 상황의 돌변 시

투자철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외국인 자본의 철수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는 외자유치에 의한 제조업 생산 확충, 수출에 힘입어 연평균 7.3%의 경제성장률을 거두는 고속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에 따라 투자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3년부터 외국인투자가 순수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V4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에게 점차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EU 역내의 다른 후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외자유치에 기반을 둔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은 이른바 '제4세대 제조업 혁신'에 대응하는 데 있어 취약성이 있다. 중동부유럽의 산업정책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볼 수 있는 미래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서비스 중간재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에 대한 준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부유럽의 인건비 및 전반적인 노무관리 비용 상승은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및 생산시설 운영은 현지의 산업 생태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EU의 무역협정과 대중동부유럽 생산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5-1 참고). 2011년 7월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2014년 9월 몰도바와 FTA를 발효하였다. 2014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와 FTA에 서명하였고, 싱가포르, 베트남과도 각각 2014년 10월과 2015년 8월에 FTA를 타결하였다. EU의 FTA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FTA 체결국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생산거점이 증가한다는 점



표 5-1. EU의 FTA

구분	무역상대국	발효일	비고
기체결 FTA	알제리	2006.12.1(G), 2009.4.1(S)	GATT, GATS
	카메룬	2014.8.4	GATT
	카리포럼	2008.11.1	GATT
	중앙아메리카	2013.8.1	GATT
	콜롬비아, 페루	2013.3.1	GATT
	코프 디부아르	2009.1.1	GATT
	동남아프리카(ESA)	2012.5.14	GATT
	페로제도	1997.1.1	GATT
	멕시코	2000.7.1(G), 2000.1.1(S)	GATT, GATS
	파푸아뉴기니, 피지	2009.12.20	GATT
	몰도바	2014.9.1	GATT
	남아공	2000.1.1	GATT
	한국	2011.7.1	GATT, GATS
타결 또는 서명완료	우크라이나	2014.6.27 서명, 미발효	GATT, GATS
	에콰도르	2014.9.23 협정문 발표	GATT
	캐나다	2014.9.26 협상 완료	GATT, GATS
	싱가포르	2014.10.17 협상 완료	GATT, GATS
	베트남	2015.8월 타결	GATT, GATS
협상 진행 중	미국	2015년 7월 10차 협상	GATT, GATS로 예상
	일본	2015년 9월 12차 협상	
	인도	2013년 이후 보류	
	태국	2014년 4월 이후 보류	
	메르코수르	2012년 협상 재개	
	인도네시아	고려 중	

주: GATT는 GATT 24조에 의거 체결된 FTA를 의미하며, GATS는 GATS 5조에 의거하여 체결된 서비스 부문의 FTA(경제 통합협정: EIA)를 의미함.

자료: 강유덕(2016, pp. 138~139, 재인용).

을 의미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인건비 수준이 중동부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따라서 EU의 FTA가 확대됨에 따라 중동부유럽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간재 조달은 EU의 FTA 체결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수출감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는 없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존에 중동부유럽 진출 한국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던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이 축소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EU의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가 수직적 분업 차원에서의 공급사슬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산업별 특색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투자 이후 조달선의 변화

한국기업은 해외진출 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하는 형식의 진출패턴을 선호해왔다. 이것은 중동부유럽 진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이 진출한 지역 근방에는 협력업체들의 생산공장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원청·하청기업의 동반진출 방식은 투자가 중간재 수출을 유발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초기와 달리 현지조달선을 크게 늘린 상황이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현지진출 기업이 현지조달을 점차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환위험 및 운송비용을 줄이고,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55)</sup> 현지 및 인접국 조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투자로 인해 수출이 증가했다라도 한국-중동부유럽 간 생산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중간재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

55) Jaromir Stefl, International Relations, 체코자동차협회(AIA)(면담일: 2016. 6. 6).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최종 소비자의 선택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 또한 기존 한국에서 조달하던 부품을 현지생산 또는 현지기업 조달로 바꾸는 추세이다.

기는 힘들다. 지난 수년간 한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베트남에서 이러한 예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재 조달 조사에 따르면, 진출 초기 한국기업들은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차츰 현지조달 또는 글로벌 소싱이 급증하고 있다.<sup>56)</sup>

한국의 중동부유럽 투자·무역 네트워크는 이러한 분기점에 처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한국산 중간재 조달 비중을 줄이고, 현지조달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환위험 감소 외에도 현지 진출 기업이 초기의 설립단계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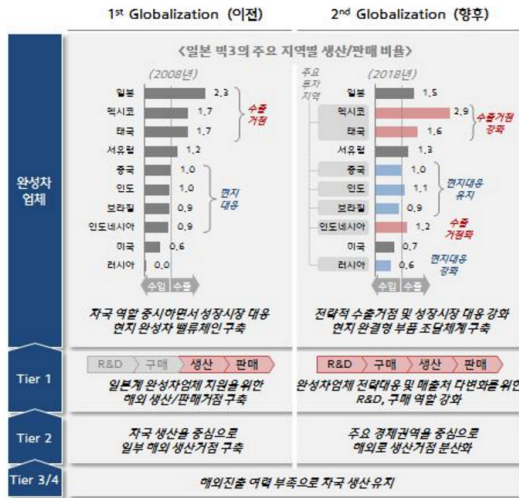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양적 증가 외에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기존의 조립 위주의 작업에서 개발과 판매까지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신홍시장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현지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대형 1차 부품업체들은 현지진출 이후 기존의 일본계 완성차업체의 현지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고객을 확보하여 성장과 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1차 부품업체들의 현지화 전략은 2차 부품업체들의 해외생산거점 확대를 요구한다. 1차 부품업체가 현지화에 성공, 현지생산이 확대될 경우, 2차 부품업체 또한 현지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57)</sup>

---

56) 박 술, 문병기(2015), p. 15.

57) [그림 5-1]에 나타난 일본 빅3 자동차업체의 부품조달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Tier 1에 해당하는 1차 부품업체의 전략변화이다. 과거 일본계 부품업체들은 일본계 완성차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생산/판매거점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향후 전략은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R&D, 현지 구매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이는 완성차업체의 전략변화에 따른 대응 및 현지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조달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1차 부품업체의 규모 및 매출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2차 부품업체의 현지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강산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7).

그림 5-1. 일본의 신흥국 부품조달 전략 변화



자료: 강산들(2014, 재인용).

두 번째 방향은 현지업체와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범용 부품 생산에서 벗어나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달 품목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진출 한국 대기업이 아닌, 유럽계 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은 현지에서의 자체적인 시장개척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중동부유럽 투자의 성과는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증감유무가 아닌,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개선과 이에 따른 수익률 증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수익환류에 따른 소득수지 개선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4) EU 기금을 활용한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앞으로 한국기업은 EU 기금으로 운영되는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대중동부유럽 진출 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EU FTA에 따라 일반조달시장(물품, 건설, 서비스)의 입·낙찰 시 과거 조달 실적 요구가 금지됨으로써 한국기업은 V4 시장의 공공사업 시장에서 경험이 없어도 진출이 가능해졌다.<sup>58)</sup> 기존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한 우리기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현지투자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포스코건설이 폴란드 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한국기업의 V4 공공조달사업 시장 진출의 첫 사례가 되어 현재까지 KT-대우인터네셔널 등 한국기업에서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였다. 수주 경험은 기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문의 제조업 중심에서 철도,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와 같은 공공인프라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 경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V4 국가의 공공프로젝트는 주로 EU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4~20년 EU 기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역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수성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은 비공식적인 평가요소에서 진입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전략이 수주 경쟁력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59)</sup>

---

58) 외교통상부(2012a), pp. 127~128.

59) 최현수 차장, 폴란드 바르샤바 코트라 무역관(면담일: 2016. 6. 13).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산들. 2014. 「최근 일본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월 23일). [http://kaica.or.kr/data\\_room/post/view.php?indexnum=1083](http://kaica.or.kr/data_room/post/view.php?indexnum=1083)(검색일: 2016. 8. 17).
- 강유덕, 김준엽. 2013.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투자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권 18호, pp. 12~16.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ld=global\\_econo&nttlid=185613](http://www.kiep.go.kr/sub/view.do?bbsld=global_econo&nttlid=185613)(검색일: 2016. 8. 17).
- 강유덕. 2016. 「EU-터키 관세동맹에 따른 터키 통상정책의 행보 -적극적 FTA 정책인가, EU의 FTA를 답습하는가?」. 『지중해연구』, 제18권 1호, pp. 117~156.
-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2014. 「체코 자테츠 신공장 기공식 개최」. (6월 23일). [http://www.nexentire.com/pr\\_nexen/news/news\\_view.asp?id=x=384](http://www.nexentire.com/pr_nexen/news/news_view.asp?id=x=384)(검색일: 2016. 10. 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폴란드, 차부품 수입수요 점증. 바르샤바무역관. (5월 18일).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ID=2082812&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6](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ID=2082812&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6)(검색일: 2016. 8. 15).
- \_\_\_\_\_. 2014.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박 술, 문병기. 2015. 「해외생산기지 이전의 우리 수출영향 -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 14. No. 44.
- 외교통상부. 2009a. 『슬로바키아 개황』.
- \_\_\_\_\_. 2009b. 『폴란드 개황』.
- \_\_\_\_\_. 2012a.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 \_\_\_\_\_. 2012b. 『헝가리 개황』.
- 조양현. 2008. 「헝가리, 주요 산업현황 및 생산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

- 제·투자정보』. (4월 22일)
- 최남석. 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11-09.
- 하병기. 2009. 「해외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현황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64호(2009-39).
- 한국무역협회. 2014. 「현대모비스, 체코와 투자협정 체결」.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1/index.jsp?sCmd=VIEW&nPostIndex=223952&nPage=1&nationalCode=EU>(검색일: 2016. 10. 8).
- KT. 2013. 「KT-대우인터,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주」. (3월 24일)
- Peter Akos BOD. 2016. 「유로존 진입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태도」. (2월 23일). <http://www.emerics.org/mobile/column.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1822939>(검색일: 2016. 10. 8).

#### [외국문자료]

- Ando, Mitsuya and Fukunari Kimura. 2013. “Production Linkage of Asia and Europe via Central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8, No. 2, pp. 204-240.
- Clegg, Jeremy and Hinrich Voss. 2012. *Chinese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 KPMG. 2016. “EU Fund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Progress Report 2007-2015. KPM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pdf/2016/06/EU-Funds-in-Central-and-Eastern-Europe.pdf>(검색일: 2016. 11. 13).
- Helpman, Elhanan. 1984. “A simple theory of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pp. 451-471.
- Helpman, Elhanan and Paul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 Ikemoto, Shuichi. 2005. *Japanese investment in the Central Eastern Europe - In the case of Czech Republic*. 『経済科学研究所』, Vol. 35, pp. 27-3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German-Central European Supply Chain - Cluster Report.” (July)

- Lim, Jia Woon. 2003. "Asian FDI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its impact on the host countries." *Asia Europe Journal*, 1, pp. 349-369.
- Markusen, James R. 1983. "Factor Movements and Commodity Trade as Compl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 pp. 341-356.
- Markusen, James and Keith Maskus. 2001. "A Unified Approach to Intra-Industry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8335.
- OICA, World Vehicle Production: OICA corresponding survey, Group Hyundai. <http://www.oica.net/wp-content/uploads//Hyundai-2014-22-July.pdf>(검색일: 2016. 8. 30).
- Strach, Pavel and Andre Everett. 2006.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zech Republic: A Motivational Analysis."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Management*, 1/2006, pp. 22-31.
- Szunomar, Agnes and Agnieszka McCaleb. 2015. *Comparing Chinese, Japanese and South Korean FDI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macroeconomic versus institutional factors*. Mimemo.

#### [언론자료]

- 「LG CNS, AMI 발판 에너지사업 「무한확장」. 2015. 『디지털경제』. (11월 4일)
- 「대우인터-KT, 폴란드 대형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계약」. 2013. 『연합뉴스』. (10월 4일)
- 「대기업 1곳이 41개 협력사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2016. 『연합뉴스』. (9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9/0200000000AKR20160919021000003.HTML>(검색일: 2016. 11. 13).
- 「국내 자동차 업체, 한국보다 해외서 더 많이 생산」. 2016. 『연합뉴스』. (9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033200003.HTML>(검색일: 2016. 11. 13).
-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화학이 폴란드에 세운다」. 2016. 『조선비즈』. (10월 7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027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0276.html)(검색일: 2016. 11. 13).



「삼양사, 헝가리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공장 준공」. 2011. 『헤럴드 경제』. (3월 27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327000051>(검색일: 2016. 7. 17).

Sobczyk, Martin M. 2016. “Poland’s Central Bank Chief Explains advantages of Not Joining Euro.”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3).  
<http://www.wsj.com/articles/polands-central-bank-chief-explains-advantages-of-not-joining-euro-1464947492>(검색일: 2016. 10. 10).

### [지도 및 통계자료]

구글맵. <http://map.google.com>(검색일: 2016. 8. 30).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0, 8. 30).

\_\_\_\_\_.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8.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30).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5. 15~9. 29).

Global Insights. <http://myinsight.ihsglobalinsight.com>(검색일: 2016. 8~9월).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index>(검색일: 2016. 8. 30).

European Commission. Available budget 2014-2020.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en/funding/available-budget](http://ec.europa.eu/regional_policy/en/funding/available-budget)(검색일: 2016. 11. 13).

Oxford Economics. <http://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검색일: 2016. 8. 14).

### [인터뷰]

체코:

- 체코자동차협회(AIA, International Relations). Mr. Jaromir Stefl 인터뷰 (2016. 6. 6).

- 체코 투자청. Mr. Pavel Chovanec(Director of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인터뷰(2016. 6. 6).
- 체코 상공회의소. Dr. Kiri Hansl(CCC, Director), Mr. Anton Uhnak (Chairman), Mr. Lukas Kovanda(RoklenFin/Chief Economist) (2016. 6. 6).
- 동원금속 방문. 이 인 법인장, 은석우 부장 인터뷰(2016. 6. 6).
- 체코 투자청. Mr. Petr Heczko 인터뷰(2016. 6. 8).

폴란드:

- 바르샤바 코트라 무역관. 최현수 차장, 남호선 과장 인터뷰(2016. 6. 13).
- 폴란드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Mr. Jan Filip Stani ʔ ko(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Department), Mrs. Joanna Krześ-Dobieszewska(Chief Expert of Innovation Department) 인터뷰(2016. 6. 14).

[관련자료 목록]

「우태희 산업부 2차관, EU 기금 수혜국을 주목하라」. 2016. 『서울신문』. (5월 29일)

## 부 록

- 한국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구성

$$Export_{vy} = c_0 + c_1 ODI_{vy} + \sum c_n X_{vy} + \epsilon_v$$

### 모형 설명

$Export_{vy}$ :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연도별 수출  
 $ODI_{vy}$ :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투자. 연도별 투자와 누적투자를 모두 포함  
 $X_{vy}$ : 실질 GDP, 1인당 명목 GDP,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실업률, 경상수지, 재정수지임.

부록 표 1. 데이터 설명 및 출처

	데이터	변수명	구성	출처
종속 변수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연도별 수출	$Export_{vy}$	백만 달러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2016. 8. 30).
설명 변수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연도별 투자	$ODI_{vy}(연차)$	백만 달러(괄호 안은 연차를 의미)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6. 8. 30).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4개국에 대한 누적투자	$ACODI_{vy}$	백만 달러(1993년부터 당해년까지의 누적투자)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	$Freedom_{vy}$	경제적 자유의 정도(투자 및 사업환경의 용이성)	Heritage Foundation (검색일: 2016. 8. 30).
	국가 더미		0 또는 1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표 2]에 요약된 회귀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ODI(독립변수)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투자의 차수를 감안할 경우, 계수 값이 점차 증가하는바, 과거의 투자가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제자유도는 매우 높은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바,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체제 전환, EU 가입으로 인한 경제개혁) 또한 한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부록 표 2. 실증분석 결과1(연도별 ODI)

구분	분석 (1): 당해 연도	분석 (2): 투자 1년 차	분석 (3): 투자 2년 차	분석 (4): 투자 3년 차	분석 (5): 투자 4년 차
<i>c</i>	-48.28*** (6.82)	-48.10*** (7.33)	-52.75*** (7.74)	-58.11*** (9.90)	-62.10*** (11.83)
$ODI_{iy}(0)$	0.19*** (0.06)	-	-	-	-
$ODI_{iy}(-1)$	-	0.16** (0.06)	-	-	-
$ODI_{iy}(-2)$	-	-	0.19*** (0.07)	-	-
$ODI_{iy}(-3)$	-	-	-	0.23*** (0.08)	-
$ODI_{iy}(-4)$	-	-	-	-	0.26*** (0.09)
$Freedom_{iy}$	13.10*** (1.65)	13.07*** (1.77)	14.16*** (1.87)	15.42*** (2.39)	16.34*** (2.85)
관찰 수	73	69	65	61	57
Adjusted R <sup>2</sup>	0.56	0.55	0.59	0.55	0.55
SE of regression	0.86	0.83	0.88	0.96	0.99
Durbin-Watson	0.53	0.58	0.69	0.65	0.60
Akaike info crit.	2.62	2.54	2.67	2.84	2.92
Schwarz crit.	2.81	2.73	2.87	3.05	3.13
F-statistic	19.08	17.34	19.53	15.51	14.47
Prob(F-statistic)	0.00	0.00	0.00	0.00	0.00

주: \*\*\*, \*\*, \* 은 각각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표 3]에 요약된 회귀분석에서는 연도별 투자가 아닌 누적투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과거의 설비투자가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투자국

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따른 것임.

- 누적투자의 경우 연도별 투자에 비해 더 높은 계수 값을 보이고 있는바, 여전히 투자가 수출을 이끌어 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부록 표 3. 실증분석 결과 2: 누적 ODI

구분	분석 (4)	분석 (5)
<i>c</i>	3.32 <sup>***</sup> (0.48)	-43.88 <sup>***</sup> (7.62)
<i>ACODI<sub>vt</sub></i>	0.64 <sup>***</sup> (0.08)	0.34 <sup>***</sup> (0.08)
<i>Freedom<sub>vt</sub></i>	-	11.73 <sup>***</sup> (1.89)
관찰 수	84	84
Adjusted R <sup>2</sup>	0.47	0.64
S.E. of regression	1.15	0.95
Durbin-Watson	0.21	0.44
Akaike info crit.	3.18	2.80
Schwarz crit.	3.32	2.97
F-statistic	19.45	30.65
Prob(F-statistic)	0.00	0.00

주: <sup>\*\*\*</sup>, <sup>\*\*</sup>, <sup>\*</sup> 은 각각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Korean Firms'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or 10 Yea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Network of Trade and Investment

KANG Yoo-Duk and LIM You-Jin

If we are to revitalize exports to the EU,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more precise analysis on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CEEC),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proper strategies. This report suggests that policies ought to enhance the network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CEEC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CEEC economy and features of Korean investors in the CEEC.

First, as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CEEC has changed since the enlargement of the EU in 2004, Korean firms in the CEEC must now reestablish the long-term strategies of their investment. Prior to 2004, the Korean firms in the CEEC realized abundant profits due to easy access to the EU market and lower wages. However, transitions in the business landscape are leading to changes in the traditional pull factors of FDI, such as low labor wages. Accordingly, it has become inevitable for firms to establish a new strategy.

Second, improving competitiveness in the CEEC benefits Korean investors to retain faster return on investment as well as increase exports. Since the EU enlargement, Korean investors tend to provide intermediate goods from local suppliers rather than from within Korea. The aim of these Korean investors is to minimize risks associated with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reduce freight costs by supplying intermediate goods from local markets. This signifies that investment in the CEEC does not increase exports. To overcome this vicious circle, Korean investors should expand their value chain.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find proper strategies to strengthen Korean firms' competitiveness and diversify sales networks to realize sustainable growth.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materials and parts will boost competitiveness. Such changes will allow investments to translate not only into improvements in the trade balance but also the balance of services and income.

Third, Korean firms should be prepared with strategies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s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caused by the EU pursuing further FTAs have had a huge impact on the supply chain of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nditions of investment and establish winning investment strategies in the CEEC. Such strategies are aimed to diversify the portfolio of Korean firms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veness.

#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 2016년

- 16-01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  
제성훈 · 나희승 · 최필수 · Lkhagvadorj DOLGORMAA
- 16-02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학범 · 김범수 · 정원혁 · 강재호 · 정기수 · 홍성원 · 한기영 ·  
김영근 · 최민규
- 16-03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장용준 · 이용 · 이정미 · 김신주
- 16-0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강유덕 · 임유진
- 16-05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이현진 · 임유진
- 16-06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  
양오석 · 서민교 · 양민지
- 16-07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경제발전전략 /  
백준기 · 김태형 · 류덕현 · 윤성욱
- 16-08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박윤주 · 김종섭 ·  
손혜현 · 이미정 · 이상현 · 김유경 · 임태균 · 서지현
- 16-09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 Deborah Elms
- 16-10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 Tran Toan Thang · Nguyen Dinh Cung ·  
Dang Quang Vinh · Dang Thu Hoai · Truong Minh Huy Vu ·  
Thai Thu Phuong · Hoang Thi Hai Yen · Tran Thi Thu Ha ·  
Pham Viet Tuan
- 16-11 The Future of Korea's Trade and Business Portfolio in North  
Africa / 박영호 · 이보얀 · Mark Abdollahian



- 16-1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인도 · 남아시아 /  
김이재 · 김태운 · 고석현 · 전선애 · 오승곤 · 고주현 ·  
Moinuddin Ahmed · 김우성 · 배경화 · 이명무 · 전광호
- 16-1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터키 · 동유럽 /  
Irina A. Korgun · Sergey F. Sutyurin · 박정후 · 변현섭 ·  
오영일 · 이경완 · 이종수 · 이채문 · 조영관 · 김신규 · 윤석준
- 16-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  
김순성 · 김용재 · 임상수 · 하상섭 · 김윤희 · 김현희 ·  
신상윤 · 오창룡 · 안승훈 · 유흥태
- 16-15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tion)/ Pankaj Jha ·  
Ricardo Pagliuso Regatieri · Uallace Moreira Lima ·  
Christopher Mark Davis · Evgeny Kanaev ·  
Sokolov Alexander Vladimirovich · Nigora Talipova ·  
Ganieva Gulnora · Mahmut Tekce · Selcuk Colakoglu

■ 2015년

-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 15-0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환
-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 15-05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 15-06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아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 15-10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 · 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 이 용
-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 이 용 · 이정미
-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 유라시아
-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 · 남아시아, 중남미
-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 · 동유럽

■ 2014년

- 14-01 인도의 중소기업 / 조충재 · 송영철
- 14-02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 · 인도 협력 방안:  
방송 · 영화 ·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최운정 · 이정미
- 14-03 한 · 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이창수 · 송백훈
- 14-04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민환 · 김정렬
- 14-05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 권기수 · 박미숙
- 14-06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상현 · 박윤주 · 김종섭 · 이미정 · 임태균 · 강정원 · 김유경 ·  
최명호
- 14-07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  
김면희 · 안상욱 · 김신규 · 김일곤 · 송병준
- 14-08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 · 튀니지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장종문 · 손성현 · 성태응
- 14-09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  
한홍렬 · 박정호 · 윤성욱 · 조혜경
- 14-10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박상남 · 김선탁 · 이지은 · 박상준
- 14-11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 김석환 · 나희승 · 박영민

14-1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 동남아, 터키·동유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 러시아·유라시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강유덕(康裕德)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졸업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국제통상, 응용경제학 석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장 역임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現, E-mail: ydkang@hufs.ac.kr)

### 저서 및 논문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공저, 2014)  
『저성장 시대의 고용 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5) 외

## 임유진(林瑜眞)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yjl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공저, 오세경 제16-17호, 2016)  
『EU 역대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공저, 오세경 제15-31호, 2016) 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물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Korean Firms'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or 10 Yea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Network of Trade and Investment

KANG Yoo-Duk and LIM You-Jin

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와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